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Jeju Women & Family Life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Jeju Women & Family Life

CONTENTS



I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08
연령별 인구	14
출생과 사망	17
인구이동	20
가족구성	22
가족형성	25
가족생활	29
가족가치관	31

IV 건강과 복지

건강상태	60
건강행태	63
출산, 유병, 사망	66
건강증진서비스	68
사회보험	71
공공부조	74
사회복지서비스	76

Ⅱ 보육과 교육

보육현황	36
보육지원	40
교육기회	41
교육여건	45
교육효과	47

Ⅲ 경제활동

경제활동 인구	50
경력단절 여성	52
취업현황	54
근로조건	56
사업체	57

Ⅴ 사회참여와 문화

정치참여	80
행정참여	82
사회참여	85
문화 및 여가활동	89
정보화	91

Ⅵ 안전과 환경

안전인식	96
안전실태	99
환경	101

일러두기

01

이 책의 각종 통계와 지표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정부 각 기관과 기타 주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각 통계표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음

▣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자료 : 발행처, 「책제목」(발행연도)
- 발행연도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제목에 표기된 연도가 발행연도임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한 경우

- 자료 : 통계청, 「자료명」

▣ 관련기관에 문서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자료를 받은 경우

- 자료 : 관련기관 내부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서비스하는 「성인지통계」 웹 시스템에서 자료를 활용한 경우

-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에서 재인용)

▣ 원자료를 재분석한 경우

- 자료 : 자료생산기관, 「자료명」 원자료 분석(조사 당해년도 등)

02

모든 자료수치 및 비율은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03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 미상 및 해당 없음
- 0 또는 0.0 : 단위 미만

04

지표에 따라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표기하였음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I 인구와 가족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이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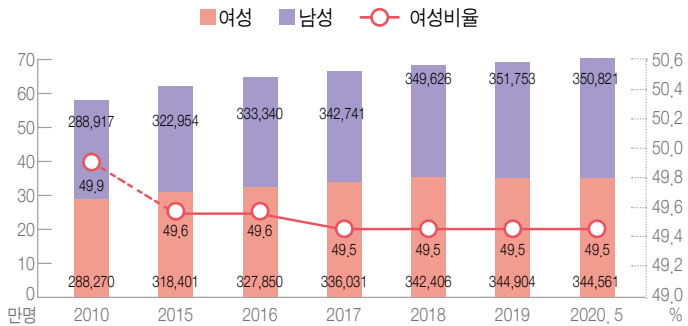
여성인구 344,561명, 여성비율 49.5%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총인구 중 여성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2020년 5월 기준) 총인구는 여성 344,561명, 남성 350,821명으로 총 695,382명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49.5%를 차지함
-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던 총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폭이 점차 감소해 오다 2020년 5월 총인구는 2019년보다 1,275명 감소함
- 여성인구비율은 2017년 이후 4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1

총인구
2010, 2015
~2020. 5



(단위: 명, %)

표 1-1

총인구
2010~202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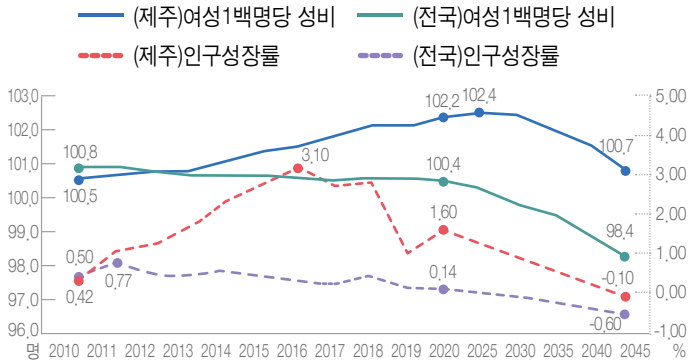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				외국인 인구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0	577,187	288,270	288,917	49.9	5,932	2,597	3,335	43.8
2011	583,284	290,971	292,313	49.9	7,128	2,967	4,161	41.6
2012	592,449	295,105	297,344	49.8	8,736	3,605	5,131	41.3
2013	604,670	300,855	303,815	49.8	10,864	4,553	6,311	41.9
2014	621,550	308,849	312,701	49.7	14,204	6,159	8,045	43.4
2015	641,355	318,401	322,954	49.6	16,960	7,434	9,526	43.8
2016	661,190	327,850	333,340	49.6	19,593	8,798	10,795	44.9
2017	678,772	336,031	342,741	49.5	21,689	9,771	11,918	45.1
2018	692,032	342,406	349,626	49.5	24,841	10,934	13,907	44.0
2019	696,657	344,904	351,753	49.5	25,668	11,260	14,408	43.9
2020.5	695,382	344,561	350,821	49.5	24,589	10,879	13,710	44.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인구성장률 감소, 당분간 성비 격차 증가 전망

인구성장률은 감소하고, 당분간 성비격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성장률은 2020년 기준 1.60%로 전국(0.14%)보다 높게 나타남. 2020년 이후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1백명당 성비는 2020년 기준 102.2명으로 전국(100.4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2025년경까지 증가 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단위: %, 명/여성1백명당)

구분	인구성장률 †		성비 ‡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2010	0.50	0.42	100.8	100.5
2011	0.77	1.08	100.8	100.6
2012	0.53	1.25	100.7	100.7
2013	0.46	1.63	100.6	100.7
2014	0.63	2.31	100.6	101.0
2015	0.53	2.69	100.6	101.3
2016	0.40	3.10	100.5	101.4
2017	0.28	2.68	100.4	101.8
2018	0.48	2.76	100.5	102.0
2019	0.20	1.04	100.5	102.0
2020	0.14	1.60	100.4	102.2
2025	0.03	1.17	100.2	102.4
2030	-0.03	0.84	99.8	102.3
2035	-0.18	0.50	99.5	101.9
2040	-0.38	0.18	98.9	101.4
2045	-0.60	-0.10	98.4	100.7

이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그림 1-2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1년 단위)
2025~2045 5년 단위)

표 1-2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1년 단위)
2025~2045 5년 단위)

주

1) 2019년 6월 공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 자료임

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이며, 2017년까지는 확정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 될 수 있음

3)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 인구성장률(%)=(비교연도인구/기준연도인구)비교기간×100

‡ 성비=남성인구/여성인구×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1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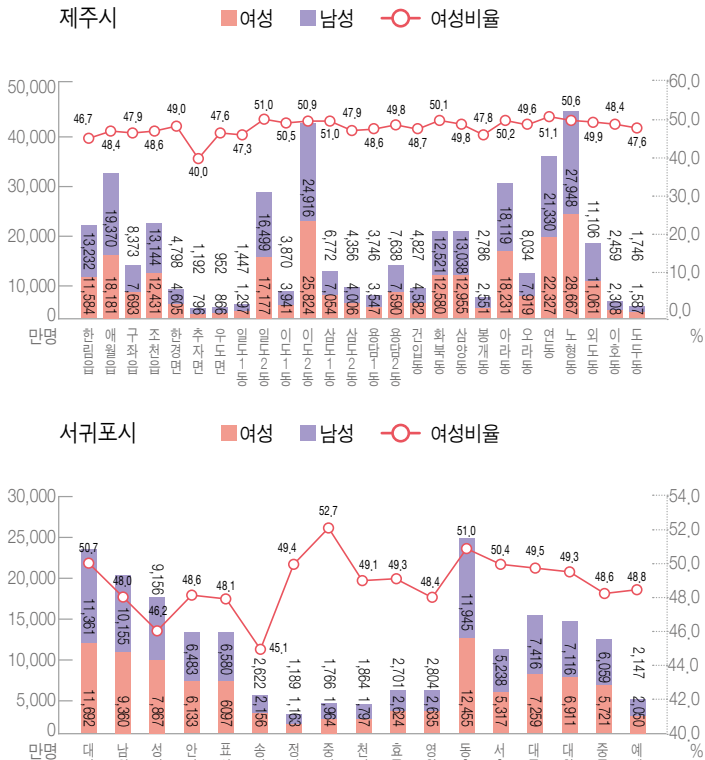
여성인구 제주시 251,360명(49.7%), 서귀포시 93,201명(49.1%)

(2020년 5월 기준) 행정시별 총인구는 제주시 505,579명, 서귀포시 189,803명이며, 여성 비율은 각각 49.7%, 49.1%로 제주시의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제주시의 읍면동 인구는 노형동이 56,615명으로 가장 많고 우도면이 1,818명으로 가장 적음. 서귀포시는 동홍동이 24,400명으로 가장 많고 정방동이 2,352명으로 가장 적음
-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읍면동은 제주시 8개동(일도2동 51.0%, 이도1동 50.5%, 이도2동 50.9%, 삼도1동 51.0%, 화북동 50.1%, 아라동 50.2%, 연동 51.1%, 노형동 50.6%), 서귀포시 3개동 1개읍(중앙동 52.7%, 동홍동 51.0%, 서홍동 50.4%, 대정읍 50.7%)임

그림 1-3

행정시별 총인구
(2020.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이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단위 :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제주시	505,579	251,360	254,219	50.3	서귀포시	189,803	93,201	96,602	50.9
한림읍	24,816	11,584	13,232	46.7	대정읍	23,053	11,692	11,361	50.7
애월읍	37,551	18,181	19,370	48.4	남원읍	19,515	9,360	10,155	48.0
구좌읍	16,066	7,693	8,373	47.9	성산읍	17,023	7,867	9,156	46.2
조천읍	25,575	12,431	13,144	48.6	안덕면	12,616	6,133	6,483	48.6
한경면	9,403	4,605	4,798	49.0	표선면	12,677	6,097	6,580	48.1
추자면	1,988	796	1,192	40.0	송산동	4,778	2,156	2,622	45.1
우도면	1,818	866	952	47.6	정방동	2,352	1,163	1,189	49.4
일도1동	2,744	1,297	1,447	47.3	중앙동	3,730	1,964	1,766	52.7
일도2동	33,676	17,177	16,499	51.0	천지동	3,661	1,797	1,864	49.1
이도1동	7,811	3,941	3,870	50.5	효돈동	5,325	2,624	2,701	49.3
이도2동	50,740	25,824	24,916	50.9	영천동	5,439	2,635	2,804	48.4
삼도1동	13,826	7,054	6,772	51.0	동홍동	24,400	12,455	11,945	51.0
삼도2동	8,362	4,006	4,356	47.9	서홍동	10,555	5,317	5,238	50.4
용담1동	7,293	3,547	3,746	48.6	대륜동	14,675	7,259	7,416	49.5
용담2동	15,228	7,590	7,638	49.8	대천동	14,027	6,911	7,116	49.3
건입동	9,409	4,582	4,827	48.7	중문동	11,780	5,721	6,059	48.6
화북동	25,101	12,580	12,521	50.1	애래동	4,197	2,050	2,147	48.8
삼양동	25,993	12,955	13,038	49.8					
봉개동	5,337	2,551	2,786	47.8					
아라동	36,350	18,231	18,119	50.2					
오라동	15,953	7,919	8,034	49.6					
연동	43,657	22,327	21,330	51.1					
노형동	56,615	28,667	27,948	50.6					
외도동	22,167	11,061	11,106	49.9					
이호동	4,767	2,308	2,459	48.4					
도두동	3,333	1,587	1,746	47.6					

표 1-3

행정시별 총인구
2020. 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01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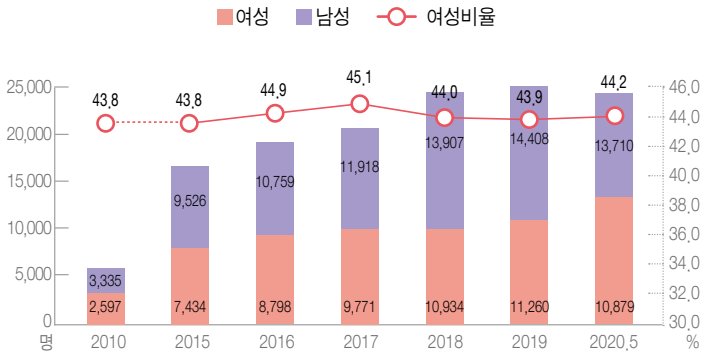
외국인 인구 24,589명(총 인구의 3.5%)
외국인 여성 10,879명(여성 비율 44.2%)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 인구는 2019년보다 감소하였고,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함

- (2020년 5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24,589명으로 총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보다 1,079명 감소함
- 외국인의 성별 인구는 여성 10,879명(여성 인구의 3.2%), 남성 13,710명(남성 인구의 3.9%)으로 외국인 인구 중 여성 비율은 44.2%이며,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은 2019년보다 증가함

그림 1-4

외국인 인구
2010,
2015~ 2020.5



농가인구 83,133명(여성 비율 49.4%)
어가인구 9,123명(여성 비율 53.9%)

농가와 어가 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은 어가에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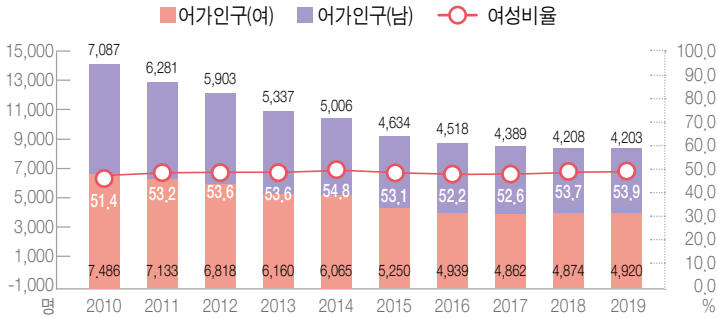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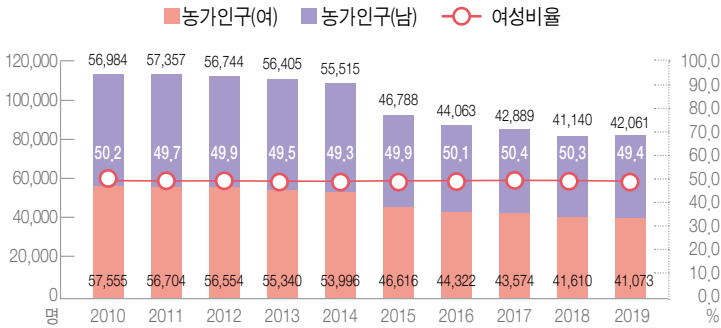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농가인구는 여성 41,073명, 남성 42,061명으로 총 83,133명이며, 여성 비율은 49.4%임. 어가인구는 여성 4,920명, 남성 4,203명으로 총 9,123명이며, 여성 비율은 53.9%임
- 여성비율은 농가보다 어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여성 농가 인구는 28.6%, 여성 어가인구는 34.3% 감소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이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그림 1-5

농가 및 어가 인구
2010~2019



(단위 : 명, %)

구분	농가인구			어가인구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0	57,555	56,984	50.2	7,486	7,087	51.4
2011	56,704	57,357	49.7	7,133	6,281	53.2
2012	56,554	56,744	49.9	6,818	5,903	53.6
2013	55,340	56,405	49.5	6,160	5,337	53.6
2014	53,996	55,515	49.3	6,065	5,006	54.8
2015	46,616	46,788	49.9	5,250	4,634	53.1
2016	44,322	44,063	50.1	4,939	4,518	52.2
2017	43,574	42,889	50.4	4,862	4,389	52.6
2018	41,610	41,140	50.3	4,874	4,208	53.7
2019	41,073	42,061	49.4	4,920	4,203	53.9

표 1-4

농가 및 어가 인구
2010~201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02

인구와 가족

연령별 인구

40대 인구 최다, 60세 이후 여성 비율 증가

연령별 인구는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후부터 여성인구가 더 많음

- (2020년 6월 기준) 연령별 인구는 40대(여성 54,459, 남성 58,202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여성 53,497명, 남성 58,076명)가 많음
- 연령별 여성인구 비율은 50대 이전까지는 남성이 더 많고, 연령별 인구가 급감하는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더 많음

그림 1-6

연령별 인구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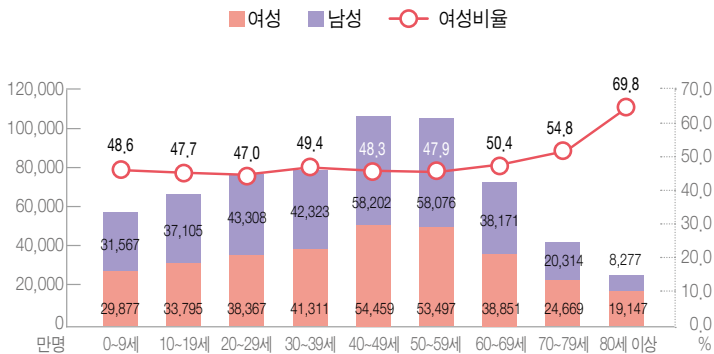


표 1-5

연령별 인구
2020. 6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671,316	333,973	337,343	49.7
0~9세	61,444	29,877	31,567	48.6
10~19세	70,900	33,795	37,105	47.7
20~29세	81,675	38,367	43,308	47.0
30~39세	83,634	41,311	42,323	49.4
40~49세	112,661	54,459	58,202	48.3
50~59세	111,573	53,497	58,076	47.9
60~69세	77,022	38,851	38,171	50.4
70~79세	44,983	24,669	20,314	54.8
80세이상	27,424	19,147	8,277	69.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노령인구 15.4%(여성 17.9%, 남성 12.9%)

제주사회는 노령인구 15.4%의 고령사회이며, 여성 노령인구가 더 많지만 지난 2010년 대비 노령인구 증가율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유년인구(14세 이하)는 2010년 18.1%(103,551명)에서 2020년 6월 말 14.3%(96,206명)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노령인구(65세 이상)는 12.2%(69,641명)에서 15.4%(103,485명)로 증가함
- (2020년 6월 기준) 노령인구는 15.4%이며, 성별로는 여성 17.9%, 남성 12.9%로 여성의 노령인구 비율이 더 높음. 하지만 성별 노령인구 2010년 대비 여성은 38.0%(43,346명 → 59,812명), 남성은 66.1%(26,295명 → 43,673명) 증가하여 남성 노령인구가 더 많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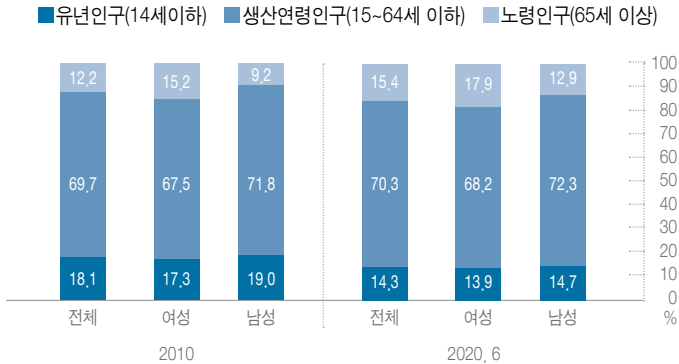


그림 1-7

연령 3계층별 비율
2010, 2020. 6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02

인구와 가족

연령별 인구

유년부양비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노령화지수 107.6%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의 여파로 유년부양비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유년부양비는 2010년 26.0%에서 2020년 6월말 2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는 17.5%에서 21.9%로, 노령화지수는 67.3%에서 10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8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0~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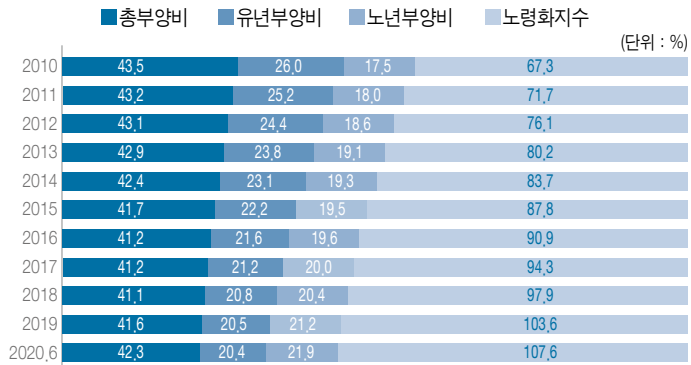


표 1-6

연령 3계층별
인구비율,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0~2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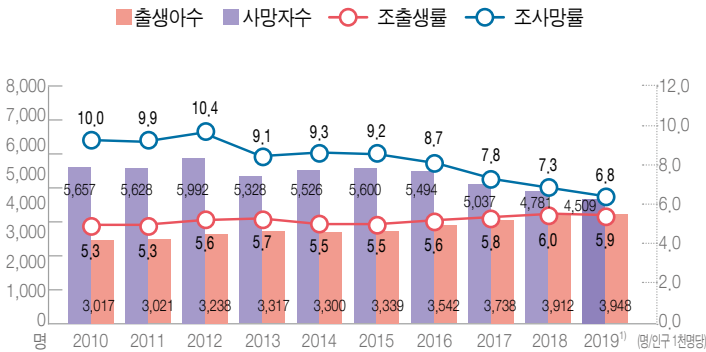
구분	계	%	유년인구 (14세이하)		생산연령인구 (15~64세)		노령인구 (65세이상)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명	%	명	%	명	%				
2010	571,255	100	103,551	18.1	398,063	69.7	69,641	12.2	43.5	26.0	17.5	67.3
2011	576,156	100	101,220	17.6	402,356	69.8	72,580	12.6	43.2	25.2	18.0	71.7
2012	583,713	100	99,758	17.1	408,030	69.9	75,925	13.0	43.1	24.4	18.6	76.1
2013	593,806	100	98,936	16.7	415,565	70.0	79,305	13.4	42.9	23.8	19.1	80.2
2014	607,346	100	98,461	16.2	426,474	70.2	82,411	13.6	42.4	23.1	19.3	83.7
2015	624,395	100	97,811	15.7	440,691	70.6	85,893	13.8	41.7	22.2	19.5	87.8
2016	641,597	100	98,117	15.3	454,291	70.8	89,189	13.9	41.2	21.6	19.6	90.9
2017	657,083	100	98,727	15.0	465,239	70.8	93,117	14.2	41.2	21.2	20.0	94.3
2018	667,191	100	98,261	14.7	472,723	70.9	96,207	14.4	41.1	20.8	20.4	97.9
2019	670,989	100	96,889	14.4	473,703	70.6	100,397	15.0	41.6	20.5	21.2	103.6
2020.6	671,316	100	96,206	14.3	471,625	70.3	103,485	15.4	42.3	20.4	21.9	107.6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 1천명당 조출생률 6.8명, 조사망률 5.9명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과 사망 간 격차가 감소함

- (2019년 기준) 출생아 수는 4,509명, 사망자수는 3,948명이며, 2010년 대비 출생아 수는 20.3%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는 30.9% 증가함
- (201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조출생률은 6.8명,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지난 2010년 보다 조출생률은 3.2명 감소한 반면 조사망률은 0.6명 증가함
- 출생과 사망 간 격차의 감소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인구증가 및 감소의 원인은 외부 유입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



(단위 : 명, 명/인구 1천명당)

구분	출생건수	조출생률	사망건수	조사망률
2010	5,657	10.0	3,017	5.3
2011	5,628	9.9	3,021	5.3
2012	5,992	10.4	3,238	5.6
2013	5,328	9.1	3,317	5.7
2014	5,526	9.3	3,300	5.5
2015	5,600	9.2	3,339	5.5
2016	5,494	8.7	3,542	5.6
2017	5,037	7.8	3,738	5.8
2018	4,781	7.3	3,912	6.0
2019 ¹⁾	4,509	6.8	3,948	5.9

03

인구와 가족 출생과 사망

그림 1-9

출생과 사망 2010~2019

표 1-7

출생과 사망 2010~2019

주

1)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3

인구와 가족

출생과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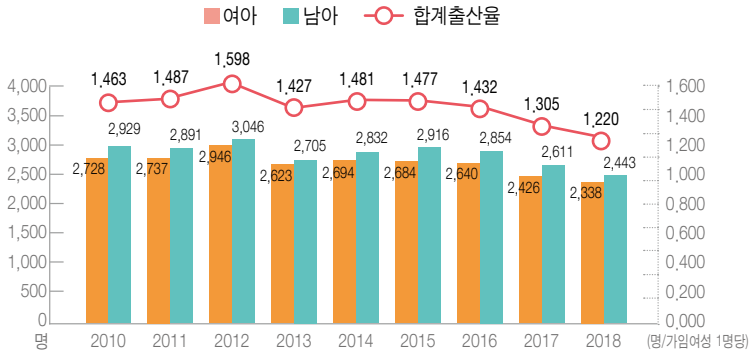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1.220명 여아 2,338명, 남아 2,443명 출생

최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초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출생아 수는 여아 2,338명, 남아 2,443명으로 남아가 105명 더 많고, 출생성비 역시 지속적으로 남아가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220명으로 2010년보다 0.243명 감소하였고, 최근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았던 2012년(1.598명) 보다 0.378명 감소함
- 등락을 반복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최근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10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10~2018



(단위 : 명, 명/가임여성 1명당)

표 1-8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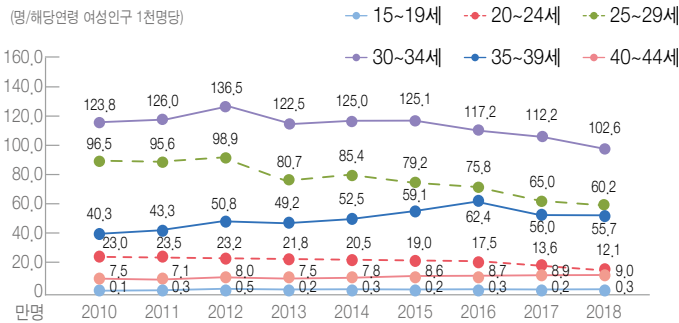
구분	계	여아	남아	합계출산율
2010	5,657	2,728	2,929	1.463
2011	5,628	2,737	2,891	1.487
2012	5,992	2,946	3,046	1.598
2013	5,328	2,623	2,705	1.427
2014	5,526	2,694	2,832	1.481
2015	5,600	2,684	2,916	1.477
2016	5,494	2,640	2,854	1.432
2017	5,037	2,426	2,611	1.305
2018	4,781	2,338	2,443	1.22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0대 초반 출산율 최다(102.6명) 2010년 대비 고령출산(35~44세) 증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가장 높지만 2010년 대비 해당 구간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18년 기준)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102.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29세가 60.2명, 35~39세가 5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34세와 25~29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지만 최근 이 연령대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 2010년 대비 35~39세(38.2% 증가)와 40~44세(20.0% 증가)의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35세 미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



(단위 : 명/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구분	모의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0	2.6	23.0	96.5	123.8	40.3	7.5	0.1
2011	2.1	23.5	95.6	126.0	43.3	7.1	0.3
2012	2.5	23.2	98.9	136.5	50.8	8.0	0.5
2013	2.6	21.8	80.7	122.5	49.2	7.5	0.2
2014	2.7	20.5	85.4	125.0	52.5	7.8	0.3
2015	2.7	19.0	79.2	125.1	59.1	8.6	0.2
2016	2.3	17.5	75.8	117.2	62.4	8.7	0.3
2017	1.6	13.6	65.0	112.2	56.0	8.9	0.2
2018	1.1	12.1	60.2	102.6	55.7	9.0	0.3

03

인구와 가족 출생과 사망

그림 1-11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18

표 1-9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4

인구와 가족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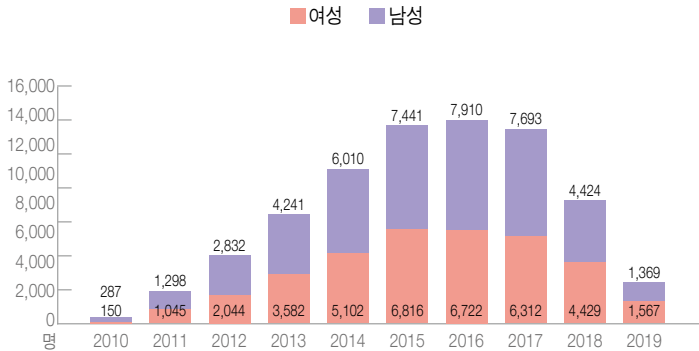
2016년 이후 순이동 인구 감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 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대비 5,917명 감소하여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함

- (2019년 기준) 순이동 인구는 2,936명(여성 1,567명, 남성 1,369명)이며, 순이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 비해 11,696명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 인구는 지난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전년대비 감소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627명 감소, 2018년에는 5,152명, 2019년에는 5,917명 감소함

그림 1-12

순이동 인구
2010~201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04

인구와 가족
인구이동

(단위 : 명)

구분	성별	총전입	총전출	시도내 이동 -시군구내	시도내 이동 -시군구간 전입	시도내 이동 -시군구간 전출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2010	계	77,224	76,787	47,076	8,431	8,431	21,717	21,280	437
	여성	38,281	38,131	23,830	4,231	4,231	10,220	10,070	150
	남성	38,943	38,656	23,246	4,200	4,200	11,497	11,210	287
2011	계	82,708	80,365	51,183	8,663	8,663	22,862	20,519	2,343
	여성	41,311	40,266	26,188	4,324	4,324	10,799	9,754	1,045
	남성	41,397	40,099	24,995	4,339	4,339	12,063	10,765	1,298
2012	계	79,501	74,625	46,142	8,138	8,138	25,221	20,345	4,876
	여성	39,262	37,218	23,388	4,157	4,157	11,717	9,673	2,044
	남성	40,239	37,407	22,754	3,981	3,981	13,504	10,672	2,832
2013	계	88,851	81,028	52,950	7,657	7,657	28,244	20,421	7,823
	여성	43,961	40,379	26,968	3,812	3,812	13,181	9,599	3,582
	남성	44,890	40,649	25,982	3,845	3,845	15,063	10,822	4,241
2014	계	92,508	81,396	51,091	8,582	8,582	32,835	21,723	11,112
	여성	45,346	40,244	25,787	4,244	4,244	15,315	10,213	5,102
	남성	47,162	41,152	25,304	4,338	4,338	17,520	11,510	6,010
2015	계	97,580	83,323	50,522	8,514	8,514	38,544	24,287	14,257
	여성	47,608	40,792	25,226	4,070	4,070	18,312	11,496	6,816
	남성	49,972	42,531	25,296	4,444	4,444	20,232	12,791	7,441
2016	계	106,825	92,193	57,293	9,151	9,151	40,381	25,749	14,632
	여성	51,773	45,051	28,512	4,472	4,472	18,789	12,067	6,722
	남성	55,052	47,142	28,781	4,679	4,679	21,592	13,682	7,910
2017	계	105,027	91,022	53,590	9,685	9,685	41,752	27,747	14,005
	여성	50,299	43,987	26,360	4,660	4,660	19,279	12,967	6,312
	남성	54,728	47,035	27,230	5,025	5,025	22,473	14,780	7,693
2018	계	104,202	95,349	55,390	9,623	9,623	39,189	30,336	8,853
	여성	50,679	46,250	27,386	4,645	4,645	18,648	14,219	4,429
	남성	53,523	49,099	28,004	4,978	4,978	20,541	16,117	4,424
2019	계	94,966	92,030	50,739	9,069	9,069	35,158	32,222	2,936
	여성	45,842	44,275	24,698	4,293	4,293	16,851	15,284	1,567
	남성	49,124	47,755	26,041	4,776	4,776	18,307	16,938	1,369

표 1-10

순이동 인구
2010~2019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05

인구와 가족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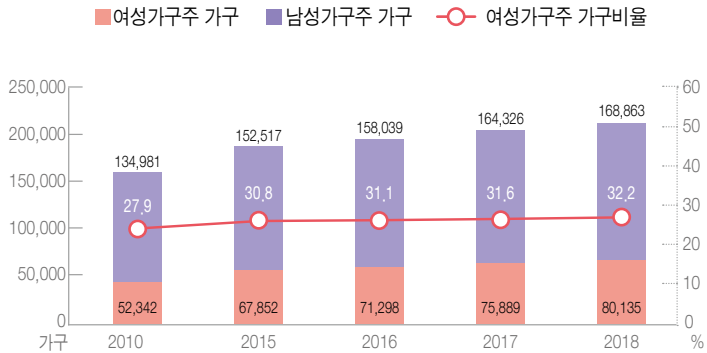
여성 가구주 80,135 가구(32.2%), 연평균 5.5% 성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가구주 가구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총 248,998가구 중 여성 가구주 80,135가구, 남성 가구주 168,863가구로 여성 가구주 비율은 32.2%임
- 여전히 남성 가구주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2010년 이후 여성 가구주는 연평균 5.5%, 남성 가구주는 연평균 2.8% 성장하여 여성가구주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림 1-13

가구주 가구
2010, 2015~2018



(단위 : 가구, %)

구분	총 가구 수	여성가구주 가구	남성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2010	187,323	52,342	134,981	27.9
2015	220,369	67,852	152,517	30.8
2016	229,337	71,298	158,039	31.1
2017	240,215	75,889	164,326	31.6
2018	248,998	80,135	168,863	32.2

표 1-11

가구주 가구
2010,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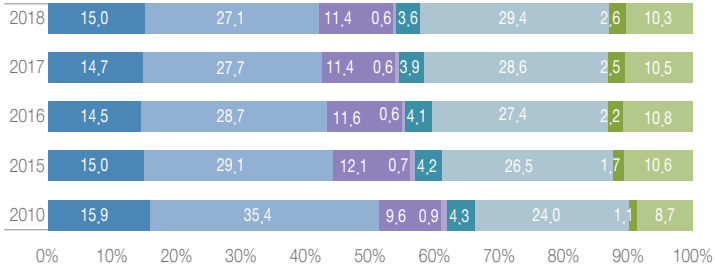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류적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1인 가구 29.4%

부부+자녀 형태 감소와 함께 1인 가구가 주류적 형태로 자리잡았으며, 비혈연, 한부모, 기타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2018 기준) 1인 가구 29.4%, 부부+자녀 가구 27.1%, 부부 가구 15.0%, 한부모 가구 11.4% 등의 순으로 1인 가구형태가 주류적 형태로 부상함
- 2010년 대비 조손가구는 16.3% 감소하였고, 부부+자녀 가구는 1.7% 증가에 그친 반면 1인 가구는 62.8%, 비친족 가구 212.5%, 기타 가구는 58.0% 증가함
- 부부+자녀 형태의 가족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 ■ 조손 ■ 부부+부모+(자녀) ■ 1인가구 ■ 비혈연 ■ 기타



(단위 : 가구,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계	187,323	100.0	220,369	100.0	229,337	100	240,215	100	248,998	100.0
부부 가구	29,762	15.9	33,157	15.0	33,259	14.5	35,430	14.7	37,407	15.0
부부+자녀 가구	66,338	35.4	64,163	29.1	65,758	28.7	66,531	27.7	67,466	27.1
한부모 가구	18,048	9.6	26,689	12.1	26,709	11.6	27,426	11.4	28,280	11.4
모+자녀	13,591	7.3	18,924	8.6	19,031	8.3	19,583	8.2	20,269	8.1
부+자녀	4,457	2.4	7,765	3.5	7,678	3.3	7,843	3.3	8,011	3.2
조부모+손자녀 가구	1,721	0.9	1,513	0.7	1,381	0.6	1,399	0.6	1,440	0.6
부부+부모+(자녀)	8,145	4.3	9,248	4.2	9,508	4.1	9,350	3.9	8,956	3.6
부부+부모	1,587	0.8	1,675	0.8	1,796	0.8	1,785	0.7	1,845	0.7
부부+자녀+부모	6,558	3.5	7,573	3.4	7,712	3.4	7,565	3.1	7,111	2.9
1인 가구	44,996	24	58,446	26.5	62,841	27.4	68,738	28.6	73,250	29.4
비혈연 가구	2,108	1.1	3,721	1.7	5,101	2.2	6,075	2.5	6,588	2.6
기타 가구	16,205	8.7	23,432	10.6	24,780	10.8	25,266	10.5	25,611	10.3

그림 1-14

가족형태별 가구
2010, 2015~2018

표 1-12

가족형태별 가구
2010, 2015~2018

주

- 1) 일반가구 대상 자료임
- 2) 부모에는 양친 또는 편부모만 있는 경우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05

인구와 가족 가족구성

1인 가구 중 여성 48.7%, 남성 51.3% 남성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남성의 비율이 높아짐

- (2018년 기준) 1인 가구는 여성 35,643 가구, 남성 37,607 가구로 총 73,250 가구이며, 이 중 남성비율은 51.3%임
- 2010년 대비 여성 1인 가구는 36.0%, 남성 1인 가구는 100.1% 증가하여 여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6년부터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를 앞지름

그림 1-15

1인 가구의
성별 구성
2010,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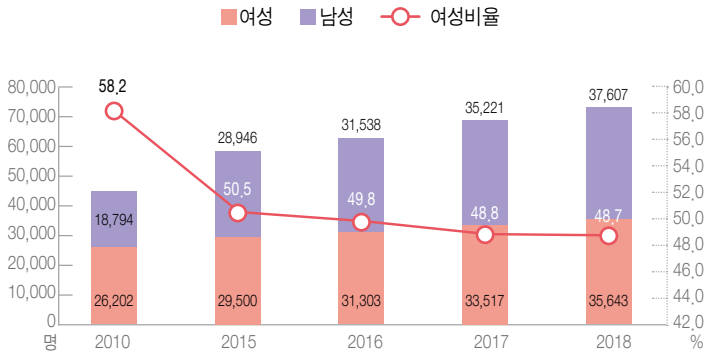


표 1-13

1인 가구의
성별 구성
2010, 2015~2018

(단위 : 가구,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2010	44,996	100	26,202	58.2	18,794	41.8
2015	58,446	100	29,500	50.5	28,946	49.5
2016	62,841	100	31,303	49.8	31,538	50.2
2017	68,738	100	33,517	48.8	35,221	51.2
2018	73,250	100	35,643	48.7	37,607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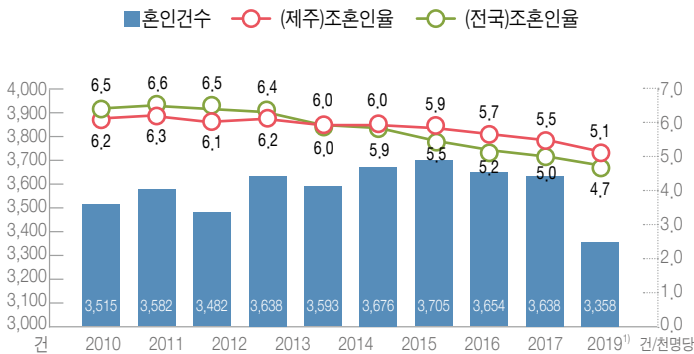
주
일반가구 가구원 대상 자료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낮아지는 혼인율, 인구 1천명당 5.1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2014년 이후 전국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혼인건수는 3,358건으로 전년보다 280건 감소하였으며, 2010년 대비 4.5% 증가함
- (2019년 기준)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5.1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하였지만 전국 수준보다 높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혼인율 감소폭은 전국수준보다 낮아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 건, 건/인구 1천명당)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2010	326,104	6.5	3,515	6.2
2011	329,087	6.6	3,582	6.3
2012	327,073	6.5	3,482	6.1
2013	322,807	6.4	3,638	6.2
2014	305,507	6.0	3,593	6.0
2015	302,828	5.9	3,676	6.0
2016	281,635	5.5	3,705	5.9
2017	264,455	5.2	3,654	5.7
2018	257,622	5.0	3,638	5.5
2019 ¹⁾	239,159	4.7	3,358	5.1

그림 1-16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2010~2019

표 1-1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2010~2019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6

인구와 가족

가족형성

결혼지연 현상 지속, 초혼 연령 여성 31세, 남성 34세

제주특별자치도의 초혼연령은 전국 평균연령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보다 결혼지연 현상이 더 두드러짐

- (2019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이 31.0세, 남성이 34.0세로 남성의 초혼연령이 3.1세 더 많고,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초혼시기가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여성은 1.8세, 남성은 2.0세 증가함. 2014년 이후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결혼지연 현상은 전국보다 더 두드러짐

그림 1-17

평균 초혼연령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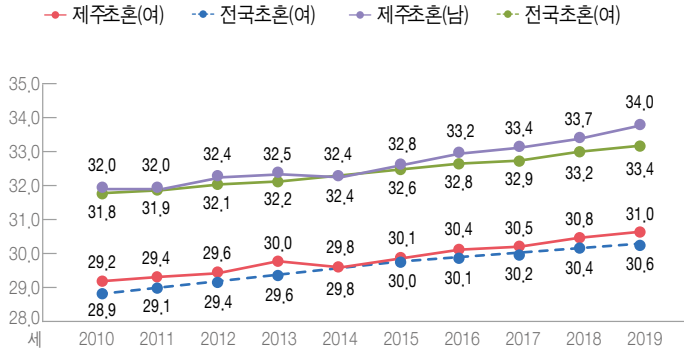


표 1-15

평균 초혼연령
2010~2019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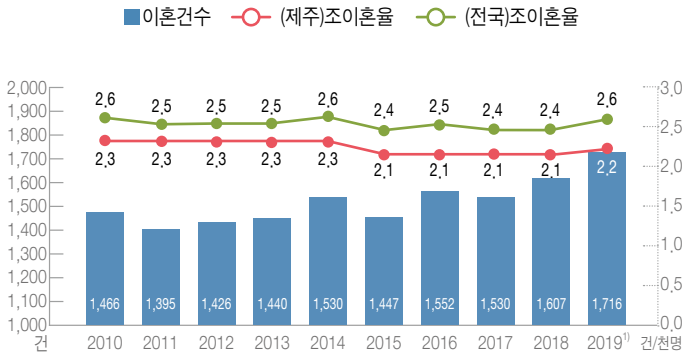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	28.9	31.8	29.2	32.0
2011	29.1	31.9	29.4	32.0
2012	29.4	32.1	29.6	32.4
2013	29.6	32.2	30.0	32.5
2014	29.8	32.4	29.8	32.4
2015	30.0	32.6	30.1	32.8
2016	30.1	32.8	30.4	33.2
2017	30.2	32.9	30.5	33.4
2018	30.4	33.2	30.8	33.7
2019	30.6	33.4	31.0	34.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전국수준보다 높은 조이혼률, 인구 1천명당 2.6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수준보다 높고, 전년보다 인구 1천명당 0.2건 증가함

- (2019년 기준) 이혼건수는 1,716건으로 전년보다 109건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17.1% 증가함
- 조이혼율은 인구 1천명당 2.6건으로 전년보다 0.2건 늘어 2010년, 2014년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함



(단위 : 건, 건/인구 1천명당)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2010	116,858	2.3	1,466	2.6
2011	114,284	2.3	1,395	2.5
2012	114,316	2.3	1,426	2.5
2013	115,292	2.3	1,440	2.5
2014	115,510	2.3	1,530	2.6
2015	109,153	2.1	1,447	2.4
2016	107,328	2.1	1,552	2.5
2017	106,032	2.1	1,530	2.4
2018	108,684	2.1	1,607	2.4
2019 ¹⁾	110,831	2.2	1,716	2.6

그림 1-18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2010~2019

표 1-16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2010~2019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6

인구와 가족

가족형성

외국인과의 혼인

여성 49건(1.7%), 남성 374건(11.1%)

외국인과의 혼인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남성의 외국인 혼인비율은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외국인과의 혼인은 여성 49건(여성 전체혼인 중 1.7%), 남성 374건(남성 전체혼인 중 11.1%)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 2012년 이후 감소하던 남성의 외국인 혼인비율은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여성의 외국인 혼인비율은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림 1-19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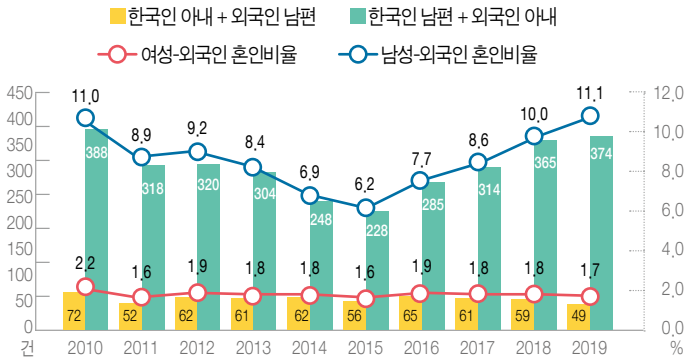


표 1-17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
2010~2019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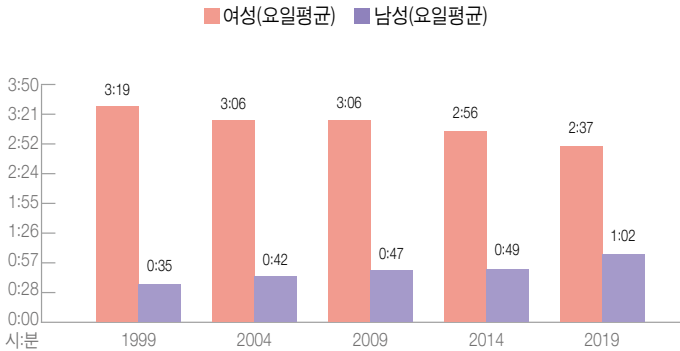
구분	아내			남편		
	전체혼인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외국인 혼인비율	전체혼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외국인 혼인비율
2010	3,253	72	2.2	3,515	388	11.0
2011	3,323	52	1.6	3,582	318	8.9
2012	3,273	62	1.9	3,482	320	9.2
2013	3,450	61	1.8	3,638	304	8.4
2014	3,388	62	1.8	3,593	248	6.9
2015	3,395	56	1.6	3,676	228	6.2
2016	3,343	65	1.9	3,705	285	7.7
2017	3,325	61	1.8	3,654	314	8.6
2018	3,220	59	1.8	3,638	365	10.0
2019	2,937	49	1.7	3,358	374	11.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시간 35분 더 많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음

-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3시간 19분에서 2019년 2시간 37분으로 42분 감소하였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35분에서 2019년 1시간 2분으로 27분 증가함
- (2019년 기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1시간 35분으로 성별 참여시간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음



(단위 : 시:분)

구분	요일평균 전체			여성			남성		
	가정 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소계	가정 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소계	가정 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소계
1999	1:31	0:28	1:59	2:36	0:43	3:19	0:23	0:12	0:35
2004	1:28	0:28	1:56	2:24	0:42	3:06	0:29	0:13	0:42
2009	1:25	0:33	1:58	2:20	0:46	3:06	0:29	0:18	0:47
2014	1:29	0:25	1:54	2:18	0:38	2:56	0:37	0:12	0:49
2019	1:29	0:21	1:50	2:08	0:29	2:37	0:50	0:12	1:02

그림 1-20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
1999~2019, 5년 주기

표 1-18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
(1999~2019, 5년 주기)

주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음식 준비, 빨래, 청소 등)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자녀, 배우자, 부모, 동거하지 않는 가족 돌보기 등) 시간의 합이며, 요일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07

인구와 가족

가족생활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 여성 60.3%, 남성 6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여성 60.3%, 남성 62.0%로 남성이 조금 높고, 지난 2010년에 비해 여성은 6.0%p 증가하였고, 남성은 1.9%p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2018년 기준 여성은 전국(54.4%) 보다 5.9%p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전국(59.0%) 보다 3.0%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21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201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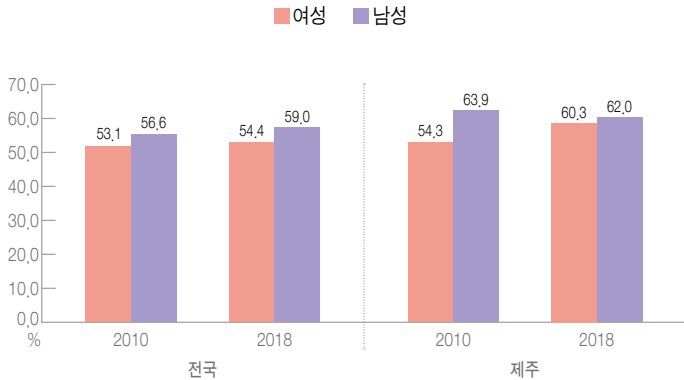


표 1-19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2010~2018, 2년 주기

주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국	2010	53.1	42.3	4.6	56.6	39.6	3.8
	2012	54.2	41.0	4.8	58.2	37.9	3.9
	2014	53.8	41.5	4.7	56.6	39.6	3.9
	2016	54.7	41.0	4.4	58.2	37.9	3.7
	2018	54.4	42.6	3.0	59.0	38.3	2.7
제주	2010	54.3	41.1	4.6	63.9	34.6	1.5
	2012	63.8	32.1	4.2	63.6	33.1	3.3
	2014	54.3	42.7	3.0	58.2	38.7	3.1
	2016	57.2	38.5	3.6	57.0	38.8	3.3
	2018	60.3	37.5	2.2	62.0	36.2	1.8

결혼필요 인식, 여성 46.5% 남성 58.0%

결혼필요 인식은 낮아진 반면 동거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 (2018년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46.5%, 남성 58.0%,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 60.7%, 남성 64.8%로 결혼에 대한 필요인식은 낮은 반면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52.8%, 남성 53.8%으로 남성의 가족관계 우선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여성 74.7%, 남성 72.3%로 결혼관련 가치관 중 가장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 40.1%, 남성 36.7%,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70.8%, 남성 74.5%로 다른 결혼관련 가치관에 비해 가장 보수적임. 다만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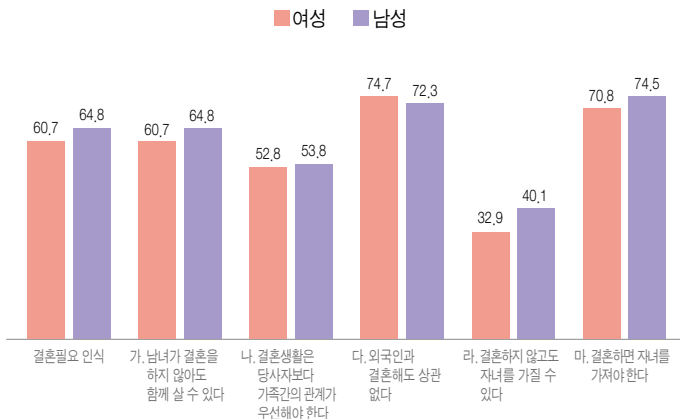


그림 1-22

결혼가치관 비교
2018

주

- 1) '결혼필요 인식'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 2) 가-마 : '전적으로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08

인구와 가족 가족가치관

표 1-20

결혼가치관 변화
2010-2018, 2년 주기

(단위 : 명, %)

구분	결혼필요 인식	가.	나.	다.	라.	마.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여성	2010	65,7	46,5	49,3	66,7	30,1	-
	2012	59,8	52,5	51,4	68,5	27,5	-
	2014	51,3	49,3	46,0	66,4	29,0	-
	2016	48,6	54,1	48,3	74,5	32,9	-
	2018	46,5	60,7	52,8	74,7	36,7	70,8
남성	2010	75,8	50,7	52,3	68,0	31,9	-
	2012	72,2	57,7	50,3	71,3	31,6	-
	2014	67,8	57,6	48,5	67,8	36,4	-
	2016	58,9	59,6	52,0	77,3	37,4	-
	2018	58,0	64,8	53,8	72,3	40,1	74,5

주

- 1) '결혼필요 인식'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 2) 가-마 : '전적으로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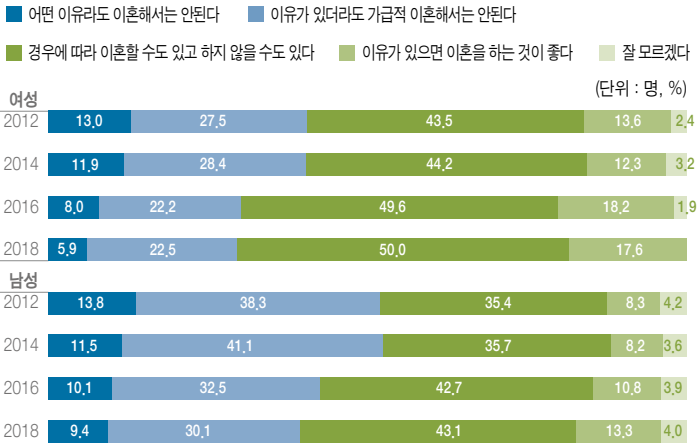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이혼에 대한 보수적 태도 감소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감소하고 있음.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임

-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남녀 모두 감소(여성 13.0%→5.9%, 남성 13.8%→9.4%)하였고,
-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남녀 모두 증가(여성 13.6%→17.6%, 남성 8.3%→13.3%)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기금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여성	2010	17.4	33.1	40.1	8.2	1.1
	2012	13.0	27.5	43.5	13.6	2.4
	2014	11.9	28.4	44.2	12.3	3.2
	2016	8.0	22.2	49.6	18.2	1.9
	2018	5.9	22.5	50.0	17.6	4.0
남성	2010	22.4	39.0	28.3	6.1	4.2
	2012	13.8	38.3	35.4	8.3	4.2
	2014	11.5	41.1	35.7	8.2	3.6
	2016	10.1	32.5	42.7	10.8	3.9
	2018	9.4	30.1	43.1	13.3	4.0

그림 1-23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2~2018, 2년 주기

표 1-21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2~2018, 2년 주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08

인구와 가족

가족가치관

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사회 책임 49.5% 가족구성원 중 부모 부양책임은 모든 자녀에게 72.9%

부모 부양책임이 '가족과 정부·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가족 책임이라는 인식은 감소경향을 보인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증가함

- (2018년 기준) 부모 부양책임은 '가족과 정부·사회' 49.5%, '가족' 31.2%, '스스로 해결' 15.4%, '정부·사회' 3.9% 순으로 나타남. 부모부양 책임의 주체 중 '가족'은 지난 2012년(43.6%)에 비해 감소한 반면, 다른 부양주체에 비해 '가족과 정부·사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가족 구성원 중 부모 부양책임은 '모든 자녀(아들과 딸)'에게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최근 능력있는 자녀의 부양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부모의 부양책임은 '모든 자녀' 72.9%, 능력있는 자식 17.4%, 장남·만며느리 5.3%, 아들·며느리 4.0%, 딸·사위 0.5%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의 부양책임이 모든 자녀에게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장남 또는 만며느리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능력있는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1-24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2012~2018, 2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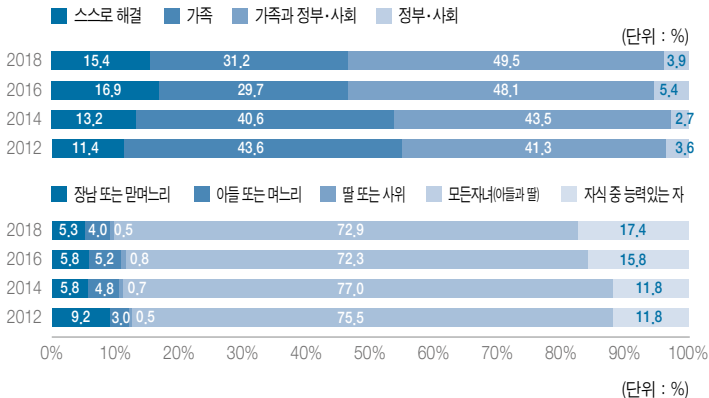


표 1-22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2012~2018, 2년 주기

구분		계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부모의 부양책임	2012	100	11.4	43.6	41.3	3.6	-
	2014	100	13.2	40.6	43.5	2.7	-
	2016	100	16.9	29.7	48.1	5.4	-
	2018	100	15.4	31.2	49.5	3.9	0.1

구분		계	장남 또는 만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아들과 딸)	자식 중 능력있는 자
가족 구성원 중 부양책임	2012	100	9.2	3.0	0.5	75.5	11.8
	2014	100	5.8	4.8	0.7	77.0	11.8
	2016	100	5.8	5.2	0.8	72.3	15.8
	2018	100	5.3	4.0	0.5	72.9	17.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Ⅱ 보육과 교육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이

보육과 교육

보육현황

영유아 인구 4.9%(여아 비율 48.5%)

저출산의 여파로 영유아(0~5세)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4.9%로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20년 6월 기준) 0~5세까지의 영유아 인구는 32,712명이며, 이 중 여아는 15,856명으로 영유아 인구의 48.5%를 차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 인구비율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9%로 전국(4.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2-1

영유아(0~5세) 인구
2010, 2015~2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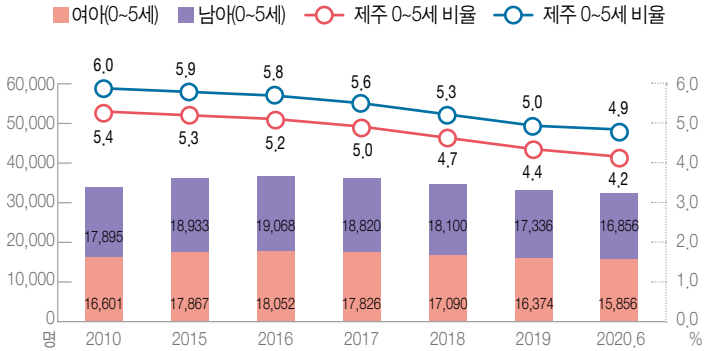


표 2-1

영유아(0~5세) 인구
2010~2020.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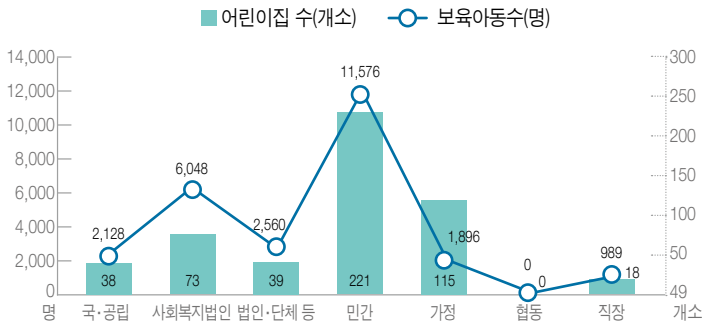
구분	0~5세	여아	남아	여아성비	0~5세 비율	
					제주	전국
2010	34,496	16,601	17,895	48.1	6.0	5.4
2011	34,791	16,813	17,978	48.3	6.0	5.5
2012	35,433	17,255	18,178	48.7	6.1	5.5
2013	35,380	17,242	18,138	48.7	6.0	5.4
2014	35,968	17,499	18,469	48.7	5.9	5.3
2015	36,800	17,867	18,933	48.6	5.9	5.3
2016	37,120	18,052	19,068	48.6	5.8	5.2
2017	36,646	17,826	18,820	48.6	5.6	5.0
2018	35,190	17,090	18,100	48.6	5.3	4.7
2019	33,986	16,501	17,485	48.6	5.1	4.4
2020.6	32,712	15,856	16,856	48.5	4.9	4.2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구통계」

어린이집 504개소 (민간 221개소 43.8%, 가정 115개소 22.8%)

어린이집은 주로 민간어린이집(43.8%)과 가정어린이집(22.8%)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은 총 504개소로, 민간 221개소(43.8%), 가정 115개소(22.8%), 사회복지법인 73개소(14.5%), 법인·단체 등 39개소(7.7%), 국·공립 38개소(7.5%), 직장 18개소(3.6%)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 (2019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아동 수는 민간 11,576명(45.9%), 사회복지법인 6,048명(24.0%), 법인·단체 등 2,560명(10.2%), 가정 1,896명(7.5%), 국·공립 2,128명(8.4%), 직장 989명(3.9%)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서귀포시 정방동임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합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개소	504	38	73	39	221	115	0	18
	비율	100.0	7.5	14.5	7.7	43.8	22.8	0.0	3.6
보육아동	명	25,197	2,128	6,048	2,560	11,576	1,896	0	989
	비율	100.0	8.4	24	10.2	45.9	7.5	0.0	3.9

그림 2-2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2019**

표 2-2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2019**

주
2019년 12월말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 상세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서귀포시 정방동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보육통계」

특수보육 어린이집 영아전담 15개소, 장애아 전문 3개소

특수보육 유형은 시간연장 유형이 가장 많으며, 장애아 전문과 24시간 유형이 가장 적음

- 특수보육 유형은 영아전담 15개소(3세 미만 영아 295명), 장애아 전문 4개소(장애아동 103명), 장애아통합 48개소(장애아동 126명), 방과후 23개소(방과후 현원 33명), 시간연장 259개소(시간연장 현원 508명), 24시간 2개소(24시간 현원 7명)로 나타남

그림 2-3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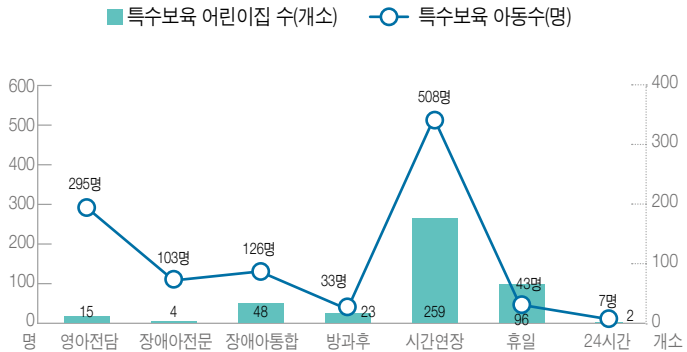


표 2-3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2019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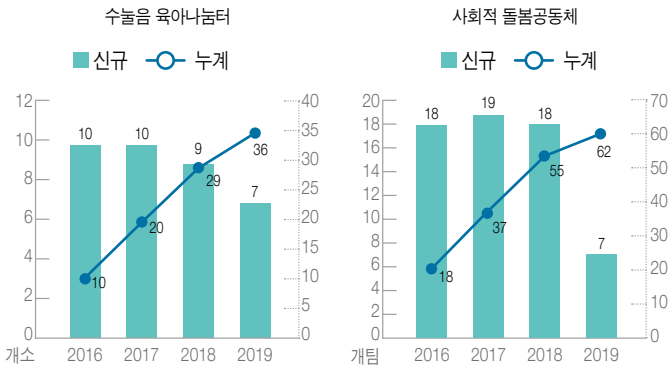
구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특수보육 어린이집 수	15	4	48	23	259	96	2
보육아동 현원	700	152	3,150	1,881	14,174	4,587	117
특수보육 아동수	3세 미만 영아	장애아동	장애아동	방과후 현원	시간연장 현원	휴일현원	24시간 현원
	295	103	126	33	508	43	7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수눔음 육아나눔터 36개소, 돌봄 공동체 62개 팀(399가족)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어린이집,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등 공격적 돌봄 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여성과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주형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주형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아파트 관리동,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아동을 돌보는 “수눔음 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과 지역주민이 팀을 조성해서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자발적 자조모임 형태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인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이 있음
- (2019년 기준) 수눔음 육아나눔터는 총 36개소가 운영되었고,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62개 팀이 조직되어 399가족이 참여함



(단위 : 개소, 개팀, 가족)

구분	수눔음 육아나눔터		사회적 돌봄공동체			
			참여팀		참여가족	
	신규	누계	신규	누계	신규	누계
2016	10	10	18	18	95	95
2017	10	20	19	37	162	257
2018	9	29	18	55	108	365
2019	7	36	7	62	34	399

이

보육과 교육 보육현황

그림 2-4

제주형 돌봄 공동체 현황 2016~2019

표 2-4

제주형 돌봄 공동체 현황 2016~2019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내부자료

02

보육과 교육

보육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24,933명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 (2019년 기준) 보육료 지원 아동은 24,933명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6년에는 전년대비 82명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57명 감소, 2018년에는 720명 감소, 2019년에는 1,297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보육료 지원 대상별로는 영아(만 0~2세, 법정포함) 12,387명, 장애아 264명, 다문화 961명, 누리(만 3~5세) 11,317명, 방과후 4명으로 영아와 누리대상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보육료 지원 현황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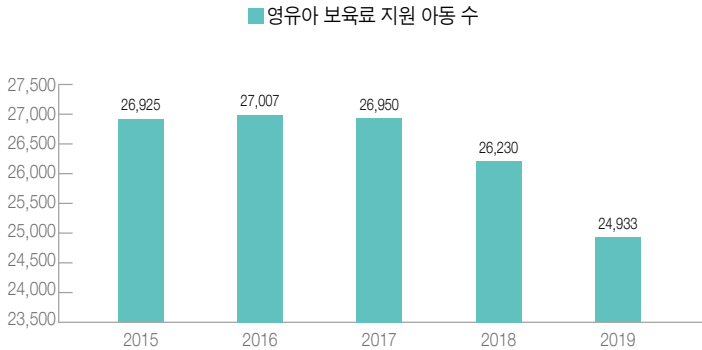


표 2-5

보육료 지원 현황

2015~2019

(단위 : 명)

연도	보육료 지원 아동수	보육료 지원 아동 수(기분보육료 부분 제외)				
		영아	장애아	다문화	누리	방과후
2015	26,925	14,060	229	713	11,893	30
2016	27,007	13,297	245	907	12,537	21
2017	26,950	13,326	234	909	12,465	16
2018	26,230	12,918	231	936	12,136	9
2019	24,933	12,387	264	961	11,317	4

주

보육료 지원 인원은 각 자격별 아동의 총 수(기분보육료 부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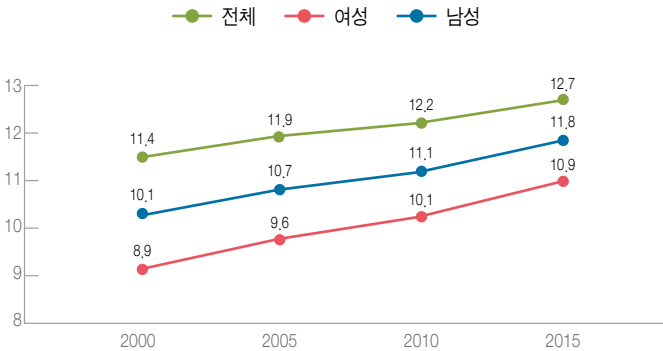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평균 교육년수 11.8년(여성 10.9년, 남성 12.7년)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여전히 적지만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평균 교육년수는 11.8년이며, 성별로는 여성 10.9년, 남성 12.7년으로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1.8년 더 적음
- 평균 교육년수는 지난 2000년 보다 여성은 2년, 남성은 1.3년 증가하여 여성의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별격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단위 : 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00	10.1	8.9	11.4
2005	10.7	9.6	11.9
2010	11.1	10.1	12.2
2015	11.8	10.9	12.7

그림 2-6

평균 교육년수
2000~2015,
5년 주기

표 2-6

평균 교육년수
2000~2015,
5년 주기

자료

여성가족부, 「2019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03

보육과 교육 교육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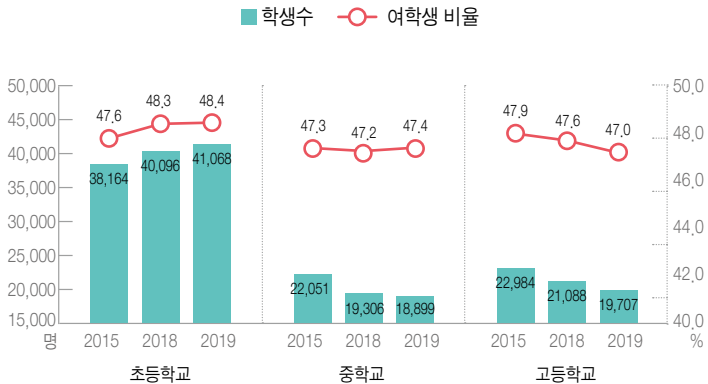
초등학교 41,068명(여성 48.4%),
중학교 18,899명(여성 47.4%), 고등학생 19,707명(여성 47.0%)

초등학생 수는 증가하였지만 중·고등학생 수는 감소함

- (2019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41,068명이며, 이 중 여학생의 비율은 48.4%로 남학생이 더 많음. 초등학생 수는 2015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많이 증가함
- (2019년 기준) 중학생 수는 18,899명이며, 이 중 여학생의 비율은 47.4%로 남학생이 더 많음. 중학생 수는 2015년 대비 14.3% 감소함
- (2019년 기준) 고등학생 수는 19,707명이며, 이 중 여학생의 비율은 47.0%로 남학생이 더 많음. 고등학생 수는 2015년 대비 14.3%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많이 감소함

그림 2-7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2015, 2018~2019



(단위: 명, %)

표 2-7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2015~2019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여성	여성 비율	전체 학생 수	여성	여성 비율	전체 학생 수	여성	여성 비율
2015	38,164	18,174	47.6	22,051	10,425	47.3	22,984	10,999	47.9
2016	38,272	18,280	47.8	20,629	9,663	46.8	22,936	11,072	48.3
2017	38,901	18,699	48.1	19,603	9,209	47.0	22,422	10,768	48.0
2018	40,096	19,357	48.3	19,306	9,115	47.2	21,088	10,035	47.6
2019	41,068	19,895	48.4	18,899	8,963	47.4	19,707	9,267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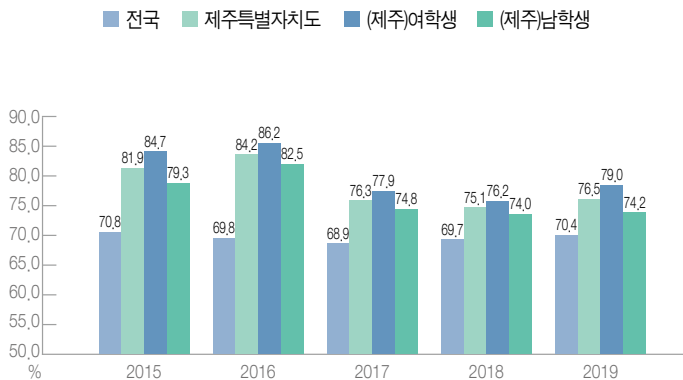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대학진학률 76.5%(여성 79.0%, 남성 74.2%)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더 높았으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진학률 차이는 점차 감소해 왔으나 2019년에는 그 차이가 다시 증가함

- (2019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76.5%로 전년보다 1.5%p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79.0%, 남학생 74.2%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4.7%p 더 높음
- 대학진학률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음. 2015년 이후 감소하던 성별격차는 2019년에 다시 증가함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계	여학생	남학생	계	여학생	남학생	계	여학생	남학생
2015	7,683	3,671	4,012	6,293	3,110	3,183	81.9	84.7	79.3
2016	6,039	2,724	3,315	5,083	2,347	2,736	84.2	86.2	82.5
2017	7,458	3,590	3,868	5,691	2,797	2,894	76.3	77.9	74.8
2018	7,419	3,555	3,864	5,568	2,708	2,860	75.1	76.2	74.0
2019	7,651	3,718	3,933	5,856	2,936	2,920	76.5	79.0	74.2

그림 2-8

대학교 진학률
2015~2019

표 2-8

대학교 진학률
2015~201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년도)」

03

보육과 교육 교육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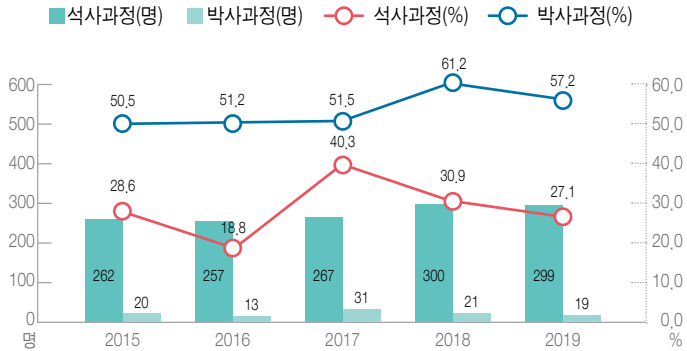
여성 졸업자 비율 석사과정 57.2%, 박사과정 27.1%

최근 5년간 여성 석사과정 졸업자는 남성보다 많은 반면 박사과정 졸업자는 여전히 적음

- (2019년 기준) 석사과정 졸업자 중 여성비율은 57.2%로 2015년보다 6.7%p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간 남성보다 더 많은 졸업자를 배출함
- (2019년 기준) 박사과정 졸업자 중 여성비율은 27.1%로 가장 여성비율이 높았던 2017년보다 13.1%p 감소하였으며, 석사과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크게 낮음

그림 2-9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
2015~2019



(단위 : 명, %)

표 2-9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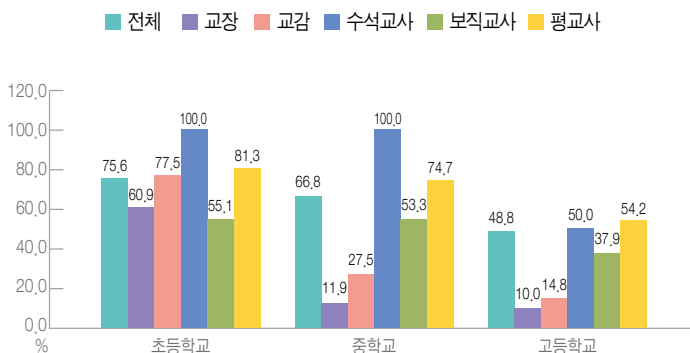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2015	519	262	50.5	70	20	28.6
2016	502	257	51.2	69	13	18.8
2017	518	267	51.5	77	31	40.3
2018	490	300	61.2	68	21	30.9
2019	523	299	57.2	70	19	27.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직위 및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성교원의 비율 감소

초·중·고등학교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며, 교장과 교감의 여성비율은 직급이 높을수록 감소함

- (2019년 기준) 학교급별 여성교원의 비율은 초등학교 75.6%, 중학교 66.8%, 고등학교 48.8%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성교원의 비율이 감소함
- (2019년 기준) 학교급별 교장의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60.9%, 중학교 11.9%, 고등학교 10.0%이며, 교감은 초등학교 77.5%, 중학교 27.5%, 고등학교 14.8%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교원의 비율이 감소함



(단위: 명, %)

구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평교사	계	
초등학교	교원수	110	120	8	523	2,079	2,840
	여성	67	93	8	288	1,690	2,146
	여성비율	60.9	77.5	100.0	55.1	81.3	75.6
중학교	교원수	42	40	5	362	1,089	1,538
	여성	5	11	5	193	814	1,028
	여성비율	11.9	27.5	100.0	53.3	74.7	66.8
고등학교	교원수	30	27	2	383	1,147	1,589
	여성	3	4	1	145	622	775
	여성비율	10.0	14.8	50.0	37.9	54.2	48.8

그림 2-10

초·중·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
2019

표 2-10

초·중·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
201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 통계연보」

04

보육과 교육 교육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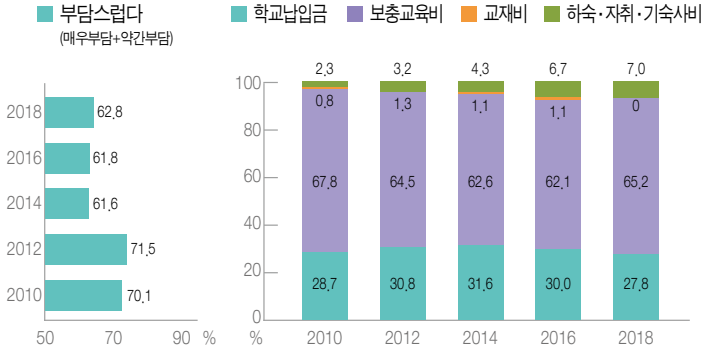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62.8% 보충교육비(65.2%) 가장 부담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다소 높고,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보충교육비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교육비 부담인식은 '부담스럽다' 62.8%로 지난 2016년보다 1.0%p 증가했지만 2010년보다는 7.3%p 감소함
- (2018년 기준) 가장 부담이 되는 교육비 요인은 보충교육비 65.2%, 학교납입금 27.8%, 하숙·자취·기숙사비 7.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1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
2010~2018,
2년 주기



(단위 : %)

표 2-11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
2010~2018,
2년 주기

구분	교육비 부담인식	부담요인					
		계	학교 납입금	보충 교육비	교재비	하숙·자취·기숙사비	기타
2010	70.1	100.0	28.7	67.8	0.8	2.3	0.4
2012	71.5	100.0	30.8	64.5	1.3	3.2	0.1
2014	61.6	100.0	31.6	62.6	1.1	4.3	0.4
2016	61.8	100.0	30	62.1	1.1	6.7	0.1
2018	62.8	100.0	27.8	65.2	-	7.0	0.1

주

- 1)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임
- 2) 교육비 부담인식은 "매우 부담"과 "약간 부담" 응답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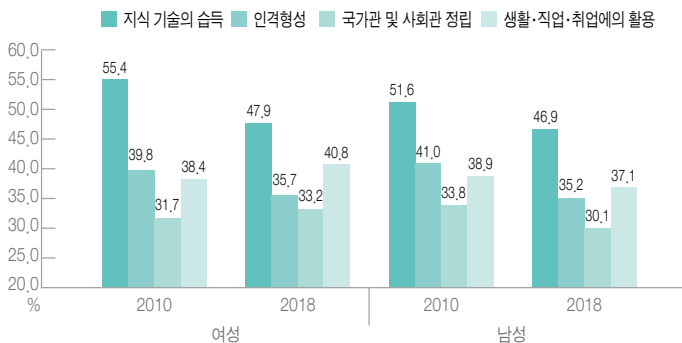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학교교육이 '지식 기술의 습득'에 효과적, 여성 47.9%, 남성 46.9%

학교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지식기술의 습득'임

- (2018년 기준)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인식은 '지식기술의 습득' 47.4%(여성 47.9%, 남성 46.9%), '인격형성' 35.4%(여성 35.7%, 남성 35.2%),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39.0%(여성 40.8%, 남성 37.1%),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31.7%(여성 33.2%, 남성 30.1%)로 '지식기술의 습득'에 대한 효과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효과 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2010년에 비해 여성은 '지식기술의 습득', '도덕성 발달 및 인성함양' 분야만 감소한 반면 남성은 모든 분야에서 감소함



(단위: %)

구분	지식 기술의 습득	인격형성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2010	전체	53.6	40.4	32.7	38.6
	여성	55.4	39.8	31.7	38.4
	남성	51.6	41.0	33.8	38.9
2012	전체	46.2	34.1	27.8	36.5
	여성	49.0	38.0	29.0	37.8
	남성	43.1	30.1	26.6	35.1
2014	전체	49.7	38.6	32.8	42.0
	여성	49.6	38.7	33.2	42.5
	남성	49.9	38.6	32.3	41.5
2016	전체	46.2	35.6	33.6	34.4
	여성	47.6	34.3	33.0	34.4
	남성	44.9	36.9	34.1	34.5
2018	전체	47.4	35.4	31.7	39.0
	여성	47.9	35.7	33.2	40.8
	남성	46.9	35.2	30.1	37.1

그림 2-12

교육효과 인식
2010, 2018

표 2-12

교육효과 인식
2010~2018, 2년 주기

주

- 1) 2010년 조사는 15세 이상, 2012년 이후 조사는 13세 이상대상임
- 2) 교육효과는 각 분야에 대한 '매우 효과 있음'과 '약간 효과 있음' 응답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05

보육과 교육 교육효과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여성 37.9%, 남성 41.7%

전공과 직업의 일치에 관한 평가는 불일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불일치'가 40.0%(여성 37.9%, 남성 41.7%)로 가장 높고, '일치'는 29.3%(여성 32.7%, 남성 26.7%)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전공과 직업의 일치 인식은 여성이 더 높고, 불일치 인식은 남성이 더 높음
-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인식은 지난 2010년보다 여성은 15.0%p, 남성은 7.5%p 감소함

그림 2-13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1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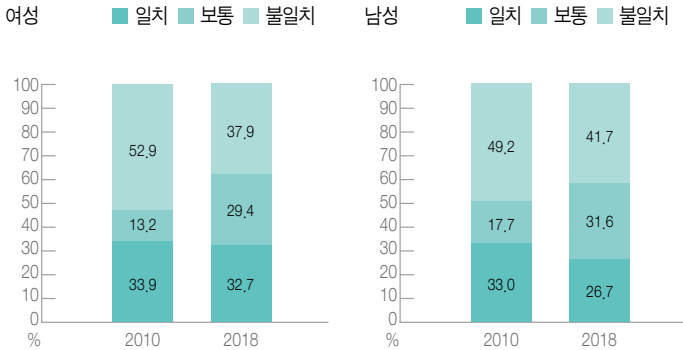


표 2-13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10, 2018, 2년 주기

주

1) 2010년 조사는 15세 이상, 2012년 이후 조사는 13세 이상 대상임

2) 일치 = '매우 일치' + '일치하는 편', 불일치 = '관개없는 편' + '전혀 관계없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단위 : %)

구분		일치	보통	불일치	계
2010	전체	33.5	15.7	50.9	100.0
	여성	33.9	13.2	52.9	100.0
	남성	33.0	17.7	49.2	100.0
2012	전체	34.1	25.7	40.2	100.0
	여성	37.2	28.7	34.1	100.0
	남성	31.7	23.3	45.0	100.0
2014	전체	32.0	28.4	39.6	100.0
	여성	32.0	26.1	41.9	100.0
	남성	31.9	30.4	37.8	100.0
2016	전체	26.5	21.8	51.7	100.0
	여성	31.4	19.6	49.0	100.0
	남성	22.4	23.6	54.0	100.0
2018	전체	29.3	30.6	40.0	100.0
	여성	32.7	29.4	37.9	100.0
	남성	26.7	31.6	41.7	100.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Ⅲ 경제활동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01

경제활동

경제활동 인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2.9%, 성별격차 여전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성별격차는 여전함

- (2019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39만명(여성 17만7천명, 남성 2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1천명 감소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3만6천명 더 적음
- (2019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69.9%(여성 62.9%, 남성 77.0%)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14.1%p 더 낮음

그림 3-1

경제활동참가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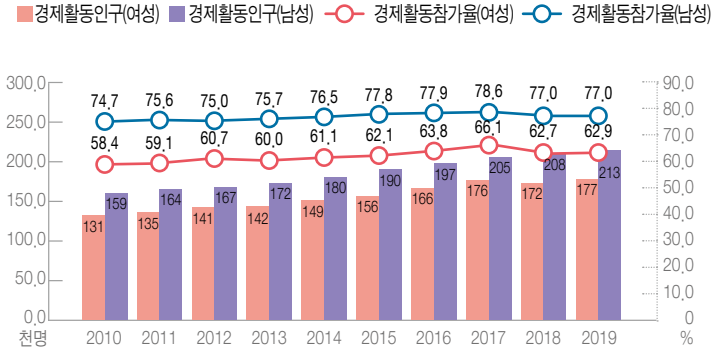


표 3-1

경제활동참가율
2010~2019

(단위: 천명,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0	289	131	159	66.3	58.4	74.7	61.1	49.6	73.2
2011	299	135	164	67.1	59.1	75.6	61.3	49.8	73.4
2012	307	141	167	67.7	60.7	75.0	61.6	50.1	73.5
2013	315	142	172	67.7	60.0	75.7	61.7	50.3	73.5
2014	329	149	180	68.7	61.1	76.5	62.7	51.5	74.4
2015	346	156	190	69.8	62.1	77.8	62.8	51.9	74.1
2016	363	166	197	70.8	63.8	77.9	62.9	52.2	74.0
2017	382	176	205	72.3	66.1	78.6	63.2	52.7	74.1
2018	379	172	208	69.8	62.7	77.0	63.1	52.9	73.7
2019	390	177	213	69.9	62.9	77.0	63.3	53.5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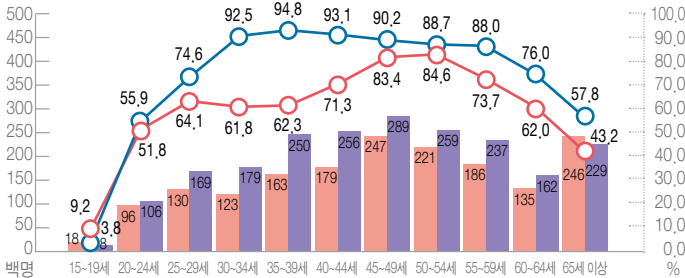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영향을 받는 30대 고용률 격차 최대

남녀의 고용률 격차는 3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기준) 성별 고용률은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더 높음
-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영향을 받는 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고용률 최고점 역시 여성은 50~54세(84.6%)와 45~49세(83.4%)인 반면 남성은 35~39세(94.8%)와 40~44세(93.1%), 30~34세(92.5%)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지만 고용률은 14.7%p 더 낮아 65세 이상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여성) ■ 경제활동인구(남성) ○ 고용률(여성) ○ 고용률(남성)



(단위 : 백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5-19세	18	8	9.2	3.8
20-24세	96	106	51.8	55.9
25-29세	130	169	64.1	74.6
30-34세	123	179	61.8	92.5
35-39세	163	250	62.3	94.8
40-44세	179	256	71.3	93.1
45-49세	247	289	83.4	90.2
50-54세	221	259	84.6	88.7
55-59세	186	237	73.7	88.0
60-64세	135	162	62.0	76.0
65세 이상	246	229	43.2	57.8

01

경제활동 경제활동 인구

그림 3-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2019

표 3-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201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02

경제활동

경력단절 여성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 11.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음

- (2019년 기준) 15~54세 기혼 여성은 11만5천명, 비취업 여성은 3만1천명이며,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은 1만3천명으로 15~54세 기혼 여성의 11.3%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15~54세 기혼 여성과 비취업 여성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1천명 증가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3

경력단절 여성 규모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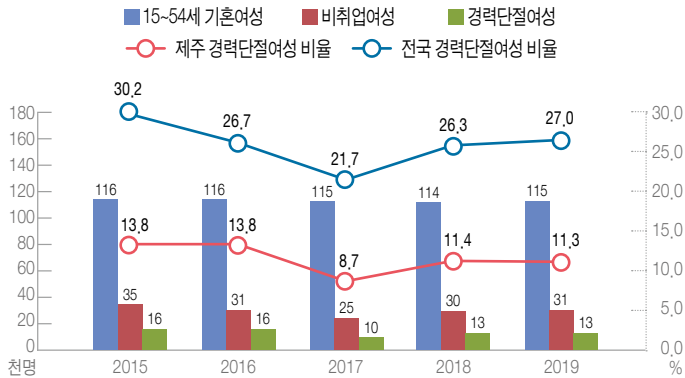


표 3-3

경력단절 여성 규모
2015~2019

주

1)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여성 중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말함

2) 2015년 인구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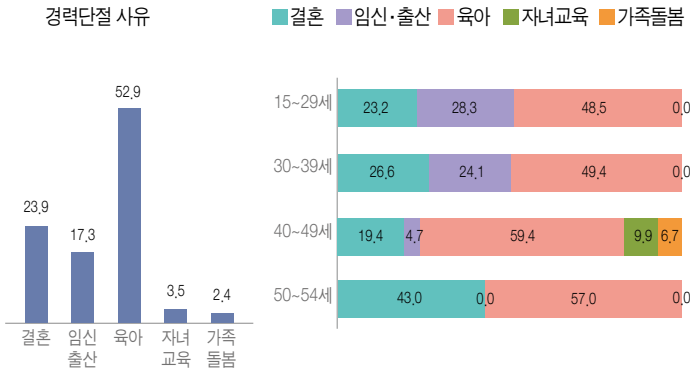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15 - 54세 기혼여성			제주 경력단절 여성 비율	전국 경력단절 여성 비율
	기혼여성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여성		
2015	116	35	16	13,8	21,7
2016	116	31	16	13,8	20,5
2017	115	25	10	8,7	20,0
2018	114	30	13	11,4	26,3
2019	115	31	13	11,3	27,0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52.9%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는 육아(52.9%)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기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52.9%, 결혼 23.9%, 임신·육아 17.3%, 자녀교육 3.5%, 가족돌봄 2.4% 순으로 나타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중이 가장 큼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구분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전체	23.9	17.3	52.9	3.5	2.4
15-29세	23.2	28.3	48.5	-	-
30-39세	26.6	24.1	49.4	-	-
40-49세	19.4	4.7	59.4	9.9	6.7
50-54세	43	-	57	-	-

그림 3-4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2019

표 3-4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201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원자료 분석)

03

경제활동

취업현황

40대 취업자 최다, 30대 성별격차 최대

취업자 수의 성별격차는 30대 > 40대 > 50대 > 20대 순이며, 30~40대 성별격차의 이유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파악됨

- (2019년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37만8천명 중 여성은 16만9천명, 남성은 20만9천명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4만명 더 적음
- 취업자 수의 성별격차는 30대(1만5천명), 40대(1만1천명), 50대(8천명), 20대(5천명), 60대 이상(1천명) 순으로 남성이 더 많고, 20대 미만에서만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성별격차가 큰 이유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5

연령별 취업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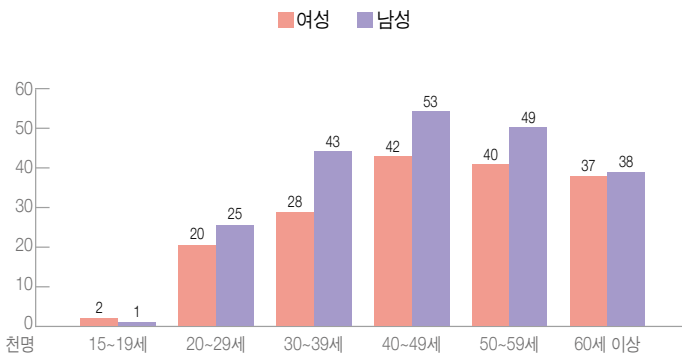


표 3-5

연령별 취업자
2019

(단위 : 천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계	378	168	204	-40
15 - 19세	2	2	1	1
20 - 29세	46	20	25	-5
30 - 39세	71	28	43	-15
40 - 49세	95	42	53	-11
50 - 59세	89	40	49	-8
60세 이상	76	37	3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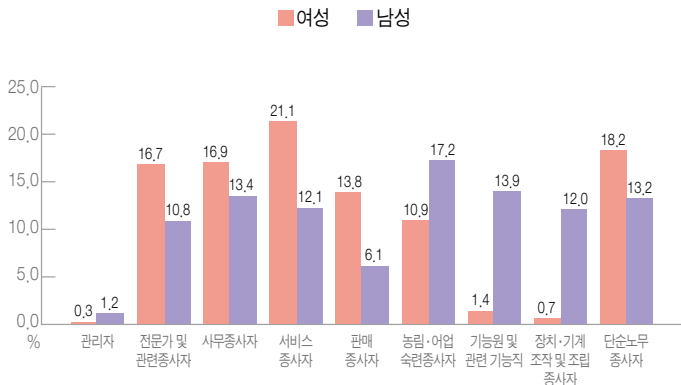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원자료 분석)

여성 취업자 중 서비스직 종사자 최다(21.1%)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 단순
노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기준) 여성 취업자의 종사 직종은 서비스직 21.1%, 단순노무직 18.2%, 사무직 16.9%, 전문가 및 관련직 16.7%, 판매직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농림·어업 숙련직 17.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13.9%, 사무직 13.4%, 단순노무직 13.2%, 서비스직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러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은 남성의 종사비율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여성의 종사비율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남



(단위: 백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관리자	5 (0.3)	25 (1.2)	30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3 (16.7)	227 (10.8)	510 (13.5)
사무 종사자	286 (16.9)	279 (13.4)	565 (14.9)
서비스 종사자	357 (21.1)	253 (12.1)	610 (16.1)
판매 종사자	234 (13.8)	128 (6.1)	362 (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4 (10.9)	360 (17.2)	544 (14.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24 (1.4)	291 (13.9)	315 (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 (0.7)	252 (12)	264 (7.0)
단순노무 종사자	308 (18.2)	276 (13.2)	584 (15.4)
계	1,693 (100)	2,091 (100)	3,784 (100)

그림 3-6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
2019 상반기

표 3-6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
2019 상반기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원자료 분석)

04

경제활동

근로조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03천원, 남성 2,825천원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7.4% 수준으로 여전히 남성보다 낮음

- (2019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03천원, 남성 2,825천원으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7.4% 수준으로 남성보다 921천원 더 적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월평균임금은 2010년 보다 여성은 53만3천원, 남성은 72만2천원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여성은 38.9%, 남성은 34.3% 증가함

그림 3-7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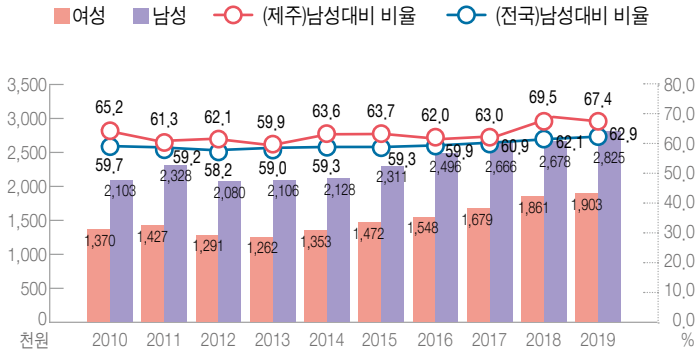


표 3-7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10~2019

주

조사 시점 기준 임금근로자가 지난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으로 세급 공제전 임금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0년 연간자료, 2011~2013년 3분기 A형), 2013~2019년 하반기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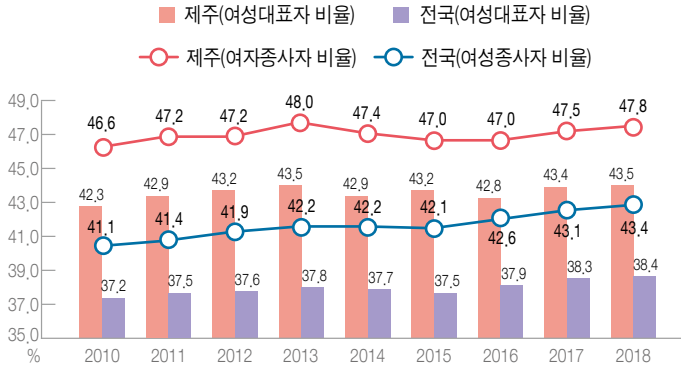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제주				전국 남성대비
	전체	여성	남성	남성대비	
2010	1,773	1,370	2,103	65.2	59.7
2011	1,906	1,427	2,328	61.3	59.2
2012	1,698	1,291	2,080	62.1	58.2
2013	1,684	1,262	2,106	59.9	59.0
2014	1,763	1,353	2,128	63.6	59.3
2015	1,919	1,472	2,311	63.7	59.3
2016	2,017	1,548	2,496	62.0	59.9
2017	2,162	1,679	2,666	63.0	60.9
2018	2,280	1,861	2,678	69.5	62.1
2019	2,374	1,903	2,825	67.4	62.9

사업체 여성 대표자 비율 43.5%, 여성 종사자 비율 47.8%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대표자 사업체 비율은 43.5%, 여성 종사자 비율은 47.8%로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체 수는 62,871개소 중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27,380개소로 43.5%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수준보다 5.1%p 더 높음. 제주도의 여성대표 사업체는 전년보다 1,335개소 증가함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276,942명이며 이 중 여성은 132,501명으로 47.8%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수준보다 4.5%p 더 높음. 여성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7,716명 더 증가함



(단위 : 개,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사업체수				성별 종사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전체 사업체	여성 대표자	여성 비율	여성 대표자 비율	전체 종사자	여성 종사자	여성 비율	여성 종사자 비율
2010	45,830	19,390	42.3	37.2	202,676	94,347	46.6	41.1
2011	47,144	20,241	42.9	37.5	203,757	96,223	47.2	41.4
2012	49,252	21,298	43.2	37.6	211,468	99,893	47.2	41.9
2013	51,727	22,478	43.5	37.8	226,734	108,751	48.0	42.2
2014	53,897	23,119	42.9	37.7	235,650	111,651	47.4	42.2
2015	55,155	23,836	43.2	37.5	250,000	117,611	47.0	42.1
2016	57,791	24,745	42.8	37.9	258,188	121,355	47.0	42.6
2017	60,063	26,045	43.4	38.3	262,747	124,785	47.5	43.1
2018	62,871	27,380	43.5	38.4	276,942	132,501	47.8	43.4

그림 3-8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
2010~2018

표 3-8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
2010~2018

주

2017년부터 10차 산업분류로 조사되어, 2016년 이전 자료에 변동이 있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05

경제활동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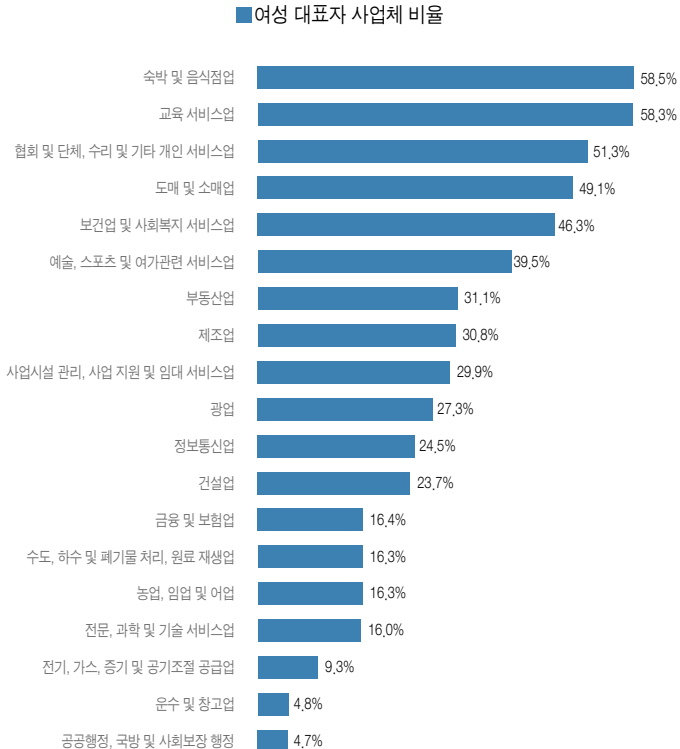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된 여성 대표자 사업체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58.5%), 교육서비스업(58.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1.3%)임

-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58.5%, 교육 서비스업 58.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3%, 도매 및 소매업 4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3% 등의 순으로 여성대표자 비율이 더 높은 경우는 일부 산업에 편중됨

그림 3-9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 201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VI 건강과 복지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01

건강과 복지

건강상태

기대여명 여성 86.7세, 남성 78.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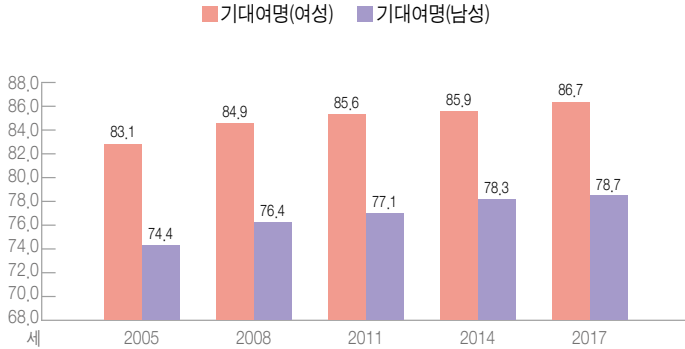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8세 더 많고, 기대여명의 성별 격차는 2014년보다 증가함

- (2017년 기준)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 86.7세, 남성 78.7세로 여성의 기대여명이 8.0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5년에 비해 여성은 3.6세, 남성은 4.3세 더 증가하여 남성의 기대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기대여명의 성별격차도 다소 감소함

그림 4-1

기대여명

2005~2017,
3년 주기



(단위 : 세)

표 4-1

기대여명

2005~2017,
3년 주기

구분	기대여명		여성-남성
	여성	남성	
2005	83.1	74.4	8.7
2008	84.9	76.4	8.5
2011	85.6	77.1	8.5
2014	85.9	78.3	7.6
2017	86.7	78.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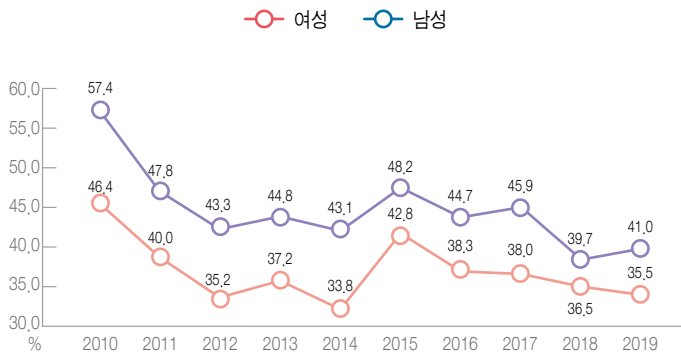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관적 건강인지율 여성 35.5%, 남성 41.0%

19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더 높고,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성별격차는 전년보다 증가함

- (2019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35.5%, 남성 41.0%로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5.5%p 더 낮음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지속적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격차는 2018년보다 증가함



(단위 : %)

구분	주관적 건강인지율			여성-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0	51.8	46.4	57.4	-11
2011	43.8	40.0	47.8	-7.8
2012	39.2	35.2	43.3	-8.1
2013	41.0	37.2	44.8	-7.6
2014	38.4	33.8	43.1	-9.3
2015	45.5	42.8	48.2	-5.4
2016	41.5	38.3	44.7	-6.4
2017	42.0	38.0	45.9	-7.9
2018	38.1	36.5	39.7	-3.2
2019	38.3	35.5	41.0	-5.5

이 건강과 복지 건강상태

그림 4-2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0~2019

표 4-2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0~2019

주

- 1) 19세 이상 대상임
- 2)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응답의 합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이 건강과 복지 건강상태

질환의심 비율 여성 24.2%, 남성 38.2%
유질환자 비율 여성 20.6%, 남성 24.6%

남녀 모두 정상 비율은 낮아진 반면 유질환자의 비율은 전년보다 높아짐

- (2018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정상B(경계) 36.7%, 질환의심 24.2%, 유질환자 20.6%, 정상A 18.5%였으며, 남성은 질환의심 28.2%, 정상B(경계) 30.2%, 유질환자 24.6%, 정상A 6.9%로 나타남
- 여성은 정상B(경계) 비율이 가장 높는데 비해 남성은 질환의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1차 판정결과 중 정상A, 정상B(경계) 비율은 지속적으로 여성이 더 높는데 비해 질환의심과 유질환자 비율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의 질병이환 가능성이 더 높음

그림 4-3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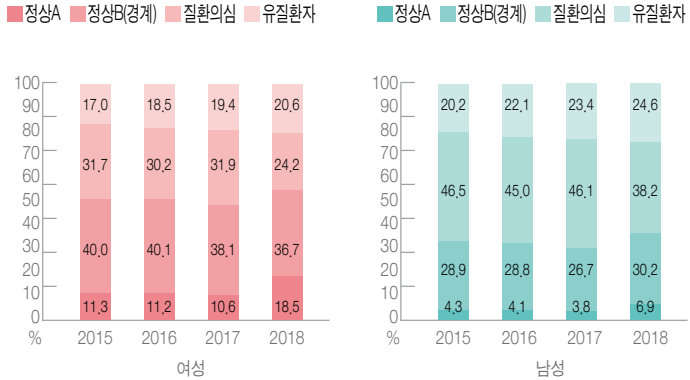


표 4-3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 2015~20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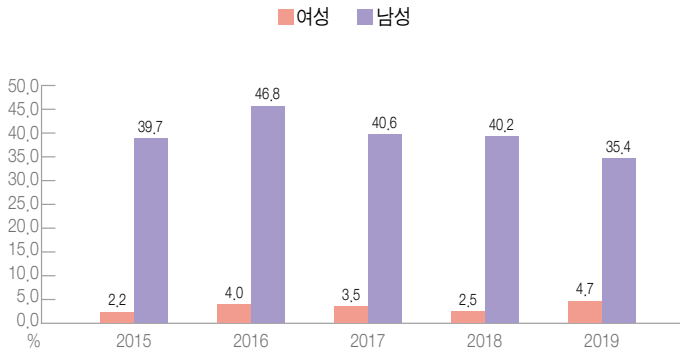
구분	1차 수 검진인원	판정결과								
		정상A	비율	정상B	비율	질환의심	비율	유질환자	비율	
여성	2015	69,396	7,853	11.3	27,739	40.0	21,994	31.7	11,810	17.0
	2016	73,516	8,234	11.2	29,497	40.1	22,220	30.2	13,565	18.5
	2017	76,143	8,109	10.6	28,979	38.1	24,296	31.9	14,759	19.4
	2018	83,399	15,470	18.5	30,608	36.7	20,165	24.2	17,156	20.6
남성	2015	68,981	2,977	4.3	19,966	28.9	32,070	46.5	13,968	20.2
	2016	73,370	3,017	4.1	21,113	28.8	32,999	45	16,241	22.1
	2017	76,371	2,913	3.8	20,373	26.7	35,196	46.1	17,889	23.4
	2018	87,010	6,043	6.9	26,243	30.2	33,277	38.2	21,447	2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연보」

현재흡연율 여성 4.7%, 남성 35.4%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전년보다는 증가함

- (2019년 기준) 현재흡연율은 여성 4.7%, 남성 35.4%로 여성이 30.7%p 더 낮으며, 전년보다 여성은 2.2%p 증가하였고 남성은 4.8%p 감소함
-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다만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은 감소하던 현재흡연율이 2019년에 들어서는 전년보다 증가함



(단위 : %)

구분	현재흡연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2015	20.8	2.2	39.7	-37.5
2016	25.3	4.0	46.8	-42.8
2017	22.0	3.5	40.6	-37.1
2018	21.3	2.5	40.2	-37.7
2019	20.0	4.7	35.4	-30.7

02

건강과 복지 건강행태

그림 4-4

현재흡연율
2015~2019

표 4-4

현재흡연율
2015~2019

주

현재흡연율은 19세 이상,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02

건강과 복지

건강행태

월간음주율 여성 39.4%, 남성 70.6%
고위험음주율 여성 5.8%, 남성 20.6%

여성의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낮음.
 다만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2019년 기준) 월간음주율은 여성 37.4%, 남성 70.6%로 여성이 남성보다 31.2%p 더 낮고, 전년보다 여성은 1.3%p, 남성은 2.5%p 감소함
- (2019년 기준)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5.8%, 남성 20.6%로 여성이 남성보다 14.8%p 더 낮고, 전년보다 여성은 0.9%p 증가한 반면 남성은 4.1%p 감소함

그림 4-5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 2015~2019

■ 고위험음주율 여성 ■ 고위험음주율 남성 ○ 월간음주율 여성 ○ 월간음주율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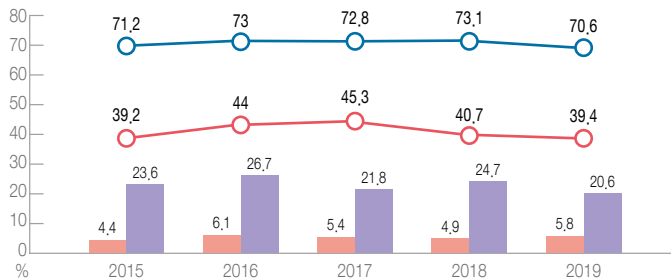


표 4-5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 2015~2019

(단위 : %)

구분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2015	55	39,2	71,2	-32	13,9	4,4	23,6	-19,2
2016	58,4	44	73	-29	16,4	6,1	26,7	-20,6
2017	59	45,3	72,8	-27,5	13,6	5,4	21,8	-16,4
2018	56,9	40,7	73,1	-32,4	14,8	4,9	24,7	-19,8
2019	55	39,4	70,6	-31,2	13,2	5,8	20,6	-14,8

주

- 1) 월간음주율 :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 달(30일)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 2) 고위험음주율 :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성은 한 번에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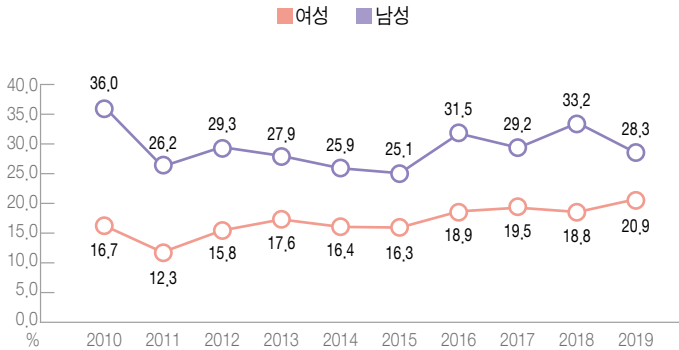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은 남성보다 높지만 전년대비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증가함

- (2019년 기준) 만 19세 이상 일반인의 건강생활실천율은 여성 28.3%, 남성 20.9%로 여성이 7.4%p 더 높게 나타났고, 전년대비 여성은 4.9%p 감소한 반면 남성은 2.1%p 증가함
-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지만 남성의 건강생활실천율에 비해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의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10	26.4	36.0	16.7
2011	19.4	26.2	12.3
2012	22.6	29.3	15.8
2013	22.8	27.9	17.6
2014	21.2	25.9	16.4
2015	20.7	25.1	16.3
2016	25.2	31.5	18.9
2017	24.4	29.2	19.5
2018	26.0	33.2	18.8
2019	24.6	28.3	20.9

02

건강과 복지 건강행태

그림 4-6

건강생활실천율
2010~2019

표 4-6

건강생활실천율
2010~2019

주

건강생활실천율은 19세 이상,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03

건강과 복지

출산, 유병, 사망

저체중아 비율 여아 6.9%, 남아 4.9% 출생아 평균체중 여아 3.18kg, 남아 3.30kg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남·여아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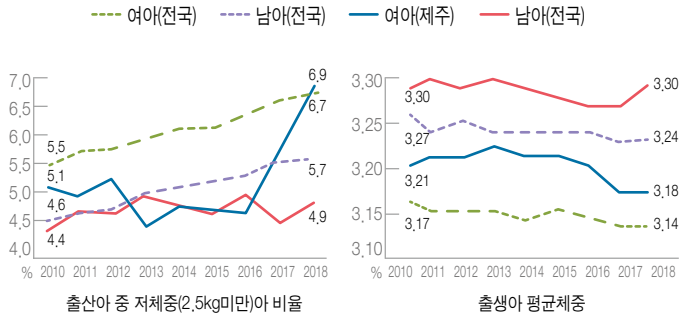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여아 6.9%, 남아 4.9%로 여아가 2.0%p 더 많고, 여아의 저체중아 비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체중아 비율은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 여아의 저체중아 비율이 전국수준보다 0.2%p 높아짐

여아의 평균체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의 평균체중은 다시 증가함.

- (2018년 기준) 출생아의 평균체중은 여아 3.18kg, 남아 3.30kg으로 여아가 더 작음
- 평균체중은 남·여아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아의 평균체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아의 평균체중은 전년보다 0.02kg 증가함

그림 4-7

저체중아 비율 2010~2018



(단위 : %, kg)

표 4-7

저체중아 비율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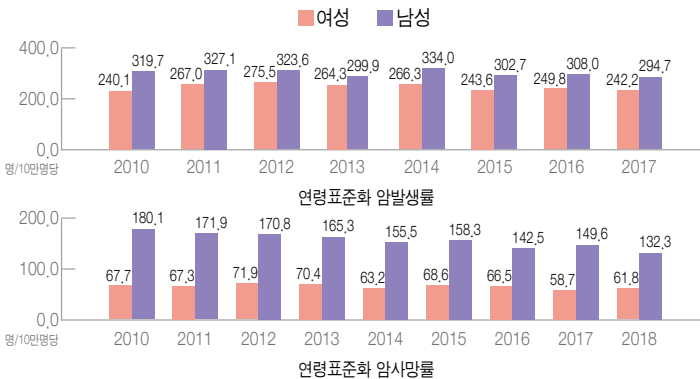
구분	출생아 중 저체중(2.5kg 미만)아율				출생아 평균체중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2010	5.5	4.6	5.1	4.4	3.17	3.27	3.21	3.3
2011	5.7	4.7	5.0	4.8	3.16	3.25	3.22	3.31
2012	5.9	4.8	5.4	4.8	3.16	3.26	3.22	3.3
2013	6.0	5.1	4.5	5.0	3.16	3.25	3.23	3.31
2014	6.2	5.2	4.9	4.9	3.15	3.25	3.22	3.3
2015	6.2	5.3	4.8	4.7	3.16	3.25	3.22	3.29
2016	6.4	5.4	4.8	5.0	3.15	3.25	3.21	3.28
2017	6.7	5.7	5.9	4.6	3.14	3.24	3.18	3.28
2018	6.9	5.7	6.9	4.9	3.14	3.24	3.18	3.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암발생률 인구 10만명당 여성 242.2명, 남성 297.4명 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여성 61.8명, 남성 132.3명

암발생률과 암사망률은 여성이 더 낮음. 다만 2010년대비
암발생률과 암사망률은 남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여성 242.2명, 남성 294.7명으로 남성이 52.5명 더 많고, 여성의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전년보다 7.6명 감소, 남성은 13.3명 감소함. 지난 2010년보다는 여성 2.1명 증가, 남성 25.0명 감소로 남성의 암발생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은 여성 61.8명, 남성 132.3명으로 남성이 70.5명 더 높게 나타났고, 전년보다 여성은 3.1명 증가, 남성은 17.3명 감소함. 또한 지난 2010년에 비해서는 여성은 5.9명, 남성은 47.8명 감소하여 남성의 암사망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단위 : 명/인구 10만명당)

구분	암발생률(연령표준화)			암사망률(연령표준화)		
	전체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0	268.8	240.1	319.7	112.7	67.7	180.1
2011	285.9	267.0	327.1	109.3	67.3	171.9
2012	288.2	275.5	323.6	112.6	71.9	170.8
2013	271.8	264.3	299.9	107.4	70.4	165.3
2014	290.6	266.3	334.0	101.7	63.2	155.5
2015	264.8	243.6	302.7	105.2	68.6	158.3
2016	271.6	249.8	308.0	97.8	66.5	142.5
2017	261.4	242.2	294.7	98.6	58.7	149.6
2018	-	-	-	91.3	61.8	132.3

그림 4-8

연령표준화
암발생률과
2010~2017
암사망률
2010~2018

표 4-8

연령표준화
암발생률과
2010~2017
암사망률
2010~2018

자료

- 1)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보건복지부, 각년도
- 2) 연령표준화 암사망률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04

건강과 복지 건강증진서비스

요양기관 여성의료인력 의사 19.3%, 치과의사 15.4%, 한의사 13.5%, 약사 50.4%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사(50.4%)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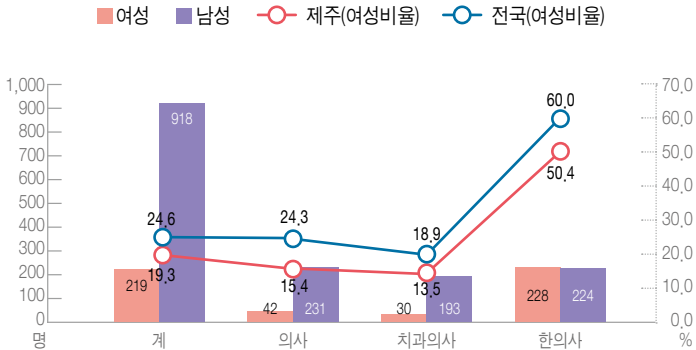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건강보험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의료인력은 의사 219명, 치과의사 42명, 한의사 30명, 약사 228명임
- 의료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사 50.4%, 의사 19.3%, 치과의사 15.4%, 한의사 13.5% 순으로 약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0% 미만으로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국보다도 낮은 수준임

그림 4-9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 2018

표 4-9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 2018



주

-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제주지역 소재 건강보험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임
-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① 의료법 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리요양병원(이하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포함됨
-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상근자 기준임
- 4) 한의사 중 일반수련의와 전문수련의는 제주지역 해당 연한이 없어 제외됨
- 5) 간호사는 성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하는 조산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도 성별통계 부재로 제외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제주 특별 자치도	2,728	1,137	273	223
제주 특별 자치도	여성	833	219	42	30	228
	남성	1,895	918	231	193	224
	여성비율	30.5	19.3	15.4	13.5	50.4
전국 여성비율		37.8	24.6	24.3	18.9	60.0

성별 만족도 격차가 큰 보건소 의료서비스,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과 미흡한 치료결과 불만족

의료서비스 만족도

- (2018년 기준) 여성의 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 75.7%, 한의원 57.5%, 종합병원 55.3%, 병·의원 51.6%, 약국 25.0% 순으로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약국이 가장 낮은 반면, 남성은 종합병원 56.2%, 약국 54.9%, 병·의원 42.3%, 한의원 35.0%, 보건소 25.1%로 순으로 종합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건소가 가장 낮음. 특히 보건소는 성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여성은 입원·진료를 위한 긴 대기시간, 남성은 미흡한 치료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의료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여성은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 60.3%, 치료결과 미흡 42.2%, 비싼 의료비 40.7%, 전문의료인 부족 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치료결과 미흡 50.4%,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 44.1%, 비싼 의료 38.2%, 진료 불성실 3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대기시간을 이유로 한 불만족이 가장 많고, 남성은 치료결과 미흡으로 인한 불만족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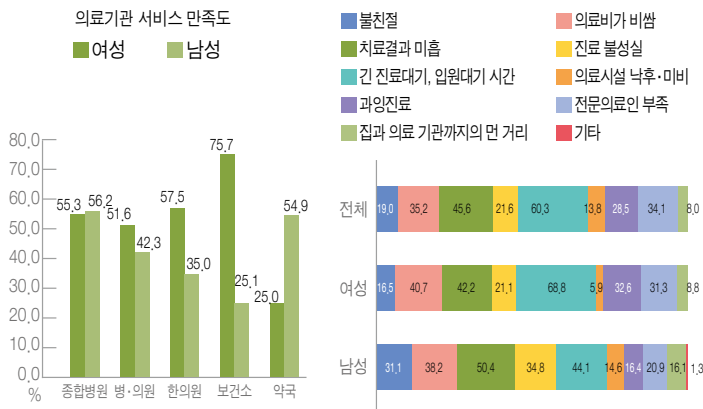


그림 4-10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2018

주

1) 의료서비스 만족도 :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의 비율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04

건강과 복지 건강증진서비스

표 4-10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2018

(단위 : %)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
전체	55.7	47.1	47.4	67.4	36.9
여성	55.3	51.6	57.5	75.7	25.0
남성	56.2	42.3	35.0	25.1	54.9

구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불친절	의료비가 비쌌	치료결과 미흡	진료 불성실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	의료시설 낙후·미비	과잉진료	전문 의료인 부족	집과 의료기관까지의 먼 거리	기타
전체	19.0	35.2	45.6	21.6	60.3	13.8	28.5	34.1	8.0	0.0
여성	16.5	40.7	42.2	21.1	68.8	5.9	32.6	31.3	8.8	0.0
남성	31.1	38.2	50.4	34.8	44.1	14.6	16.4	20.9	16.1	1.3

주

1) 의료서비스 만족도 :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의 분율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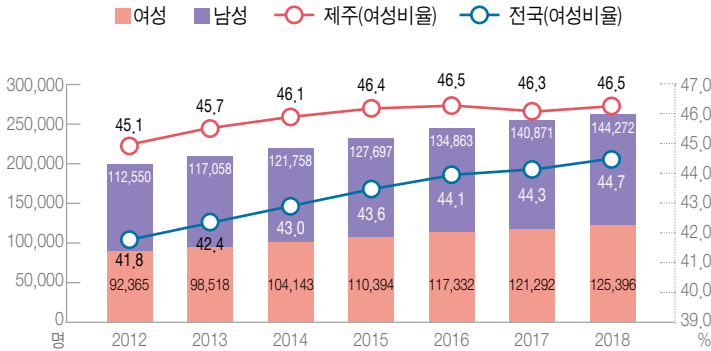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 비율 46.5%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46.5%로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18년 기준) 국민연금가입자는 총 269,66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25,396명으로 가입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증가폭이 조금 더 큼. 여성 가입자의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조금 높은 4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 명, %)

구분		총 가입자 수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전국	2012	20,329,060	11,824,156	8,504,904	41.8
	2013	20,744,780	11,947,691	8,797,089	42.4
	2014	21,125,135	12,046,242	9,078,893	43.0
	2015	21,568,354	12,158,087	9,410,267	43.6
	2016	21,832,524	12,195,190	9,637,334	44.1
	2017	21,824,172	12,145,339	9,678,833	44.3
	2018	22,313,869	12,347,796	9,966,073	44.7
제주	2012	204,915	112,550	92,365	45.1
	2013	215,576	117,058	98,518	45.7
	2014	225,901	121,758	104,143	46.1
	2015	238,091	127,697	110,394	46.4
	2016	252,195	134,863	117,332	46.5
	2017	262,163	140,871	121,292	46.3
	2018	269,668	144,272	125,396	46.5

05

건강과 복지 사회보험

그림 4-11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
2012~2018

표 4-11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
2012~2018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05

건강과 복지

사회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 비율은 46.7%

전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후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 다시 증가함

- (2018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8,726명이며, 이 중 여성은 64,735명, 남성은 73,991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9,256명 더 적음. 2012년과 비교하여 여성은 24,430명, 남성은 25,266명이 증가함
- (2018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의 비율은 46.7%로 전국보다 4.1%p 높은 수준이며, 전년보다 0.6%p 증가함

그림 4-12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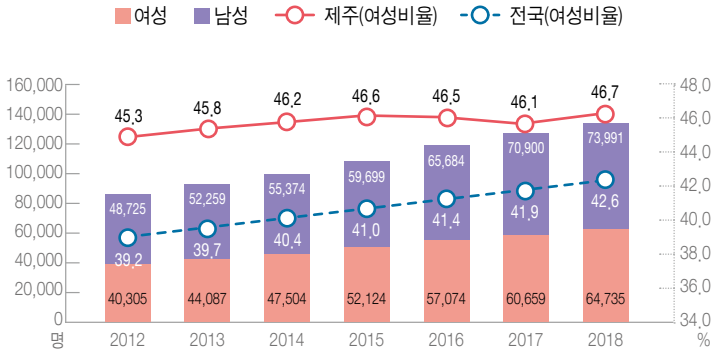


표 4-12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2012~20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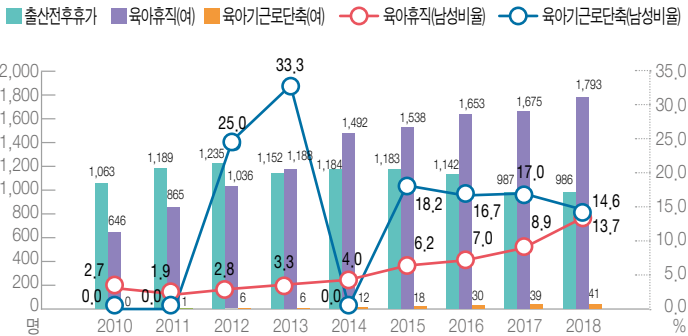
구분	전국				제주			
	계	여	남	여성비율	계	여	남	여성비율
2012	11,152,354	4,367,654	6,784,700	39.2	89,030	40,305	48,725	45.3
2013	11,571,213	4,599,514	6,971,699	39.7	96,346	44,087	52,259	45.8
2014	11,930,602	4,815,795	7,114,807	40.4	102,878	47,504	55,374	46.2
2015	12,363,063	5,064,769	7,298,294	41.0	111,823	52,124	59,699	46.6
2016	12,655,202	5,244,088	7,411,114	41.4	122,758	57,074	65,684	46.5
2017	12,958,825	5,431,205	7,527,620	41.9	131,559	60,659	70,900	46.1
2018	13,432,497	5,717,676	7,714,821	42.6	138,726	64,735	73,991	46.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

출산전·후 휴가 986명, 육아휴직 1,793명, 육아기근로단축 41명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수급자와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전히 여성 수급자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는 986명으로 전년보다 1명 감소함.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는 2012년 1,235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여성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2010년 646명에서 2017년 1,793명으로 1,147명이 증가함. 육아휴직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18년 13.7%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여성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는 2011년 1명에서 2018년 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임. 남성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는 14.6%로 전년보다 2.4%p 감소함



(단위: 명, %)

구분	출산 전·후 휴가 수급자	육아휴직 수급자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0	1,063	664	646(97.3)	18(2.7)	0	0-	0-
2011	1,189	882	865(98.1)	17(1.9)	1	1(100.0)	0(0.0)
2012	1,235	1,066	1,036(97.2)	30(2.8)	8	6(75.0)	2(25.0)
2013	1,152	1,229	1,188(96.7)	41(3.3)	9	6(66.7)	3(33.3)
2014	1,184	1,554	1,492(96.0)	62(4.0)	12	12(100.0)	0(0.0)
2015	1,183	1,640	1,538(93.8)	102(6.2)	22	18(81.8)	4(18.2)
2016	1,142	1,778	1,653(93.0)	125(7.0)	36	30(83.3)	6(16.7)
2017	987	1,838	1,675(91.1)	163(8.9)	47	39(83.0)	8(17.0)
2018	986	2,077	1,793(86.3)	284(13.7)	48	41(85.4)	7(14.6)

그림 4-13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현황
2010~2018

표 4-13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현황
2010~20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06

건강과 복지 공공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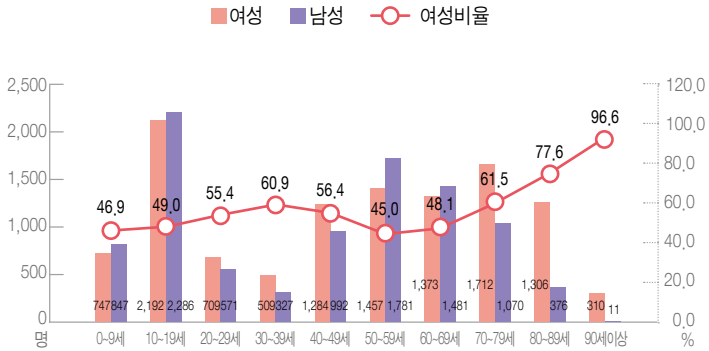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 비율 54.4% 10대 수급자 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여성이 더 많고, 연령별로는 10대 수급자가 가장 많음. 60대 미만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부터는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비율도 높아짐

- (2018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여성 11,599명, 남성 9,742명으로 총 21,341명이며,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54.4%로 남성보다 1,857명 더 많음
- 연령별 수급자는 1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60대, 7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세 미만과 50대 60대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60대 미만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후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도 높아짐

그림 4-14

연령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2018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21,341	11,599	9,742	54.4
0-9세	1,594	747	847	46.9
10-19세	4,478	2,192	2,286	49.0
20-29세	1,280	709	571	55.4
30-39세	836	509	327	60.9
40-49세	2,276	1,284	992	56.4
50-59세	3,238	1,457	1,781	45.0
60-69세	2,854	1,373	1,481	48.1
70-79세	2,782	1,712	1,070	61.5
80-89세	1,682	1,306	376	77.6
90세 이상	321	310	11	96.6

표 4-14

연령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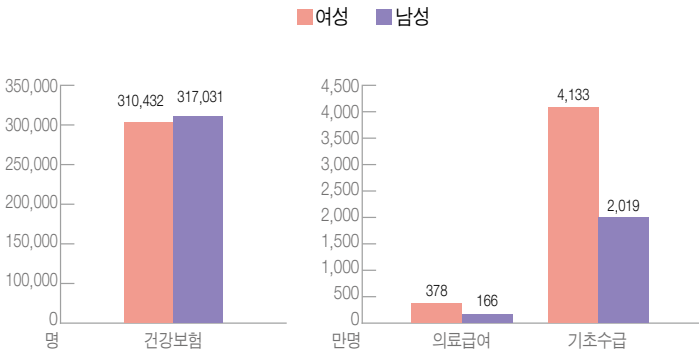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의료급여자 여성 69.5%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여성 67.2%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인구 및 의료급여자, 기초수급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 (2018년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는 여성 51,362명, 남성 37,581명으로 총 88,943명이며, 여성의 건강보험적용인구는 남성보다 37,581명 더 많고, 65세 건강보험적용인구의 57.7%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의료급여자는 여성 378명, 남성 166명으로 총 544명이며, 여성 의료급여자는 남성보다 212명 더 많고, 의료급여자의 69.5%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기초수급자는 여성 4,133명, 남성 2,019명으로 총 6,152명이며, 여성 기초수급자는 남성보다 2,114명 더 많고, 기초수급자의 67.2%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명, %)

구분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전체	95,639	88,943	544	6,152
여성	55,873	51,362	378	4,133
남성	39,766	37,581	166	2,019
여성비율	58.4	57.7	69.5	67.2

06

건강과 복지 공공부조

그림 4-15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 2018

표 4-15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 20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통계」

07

건강과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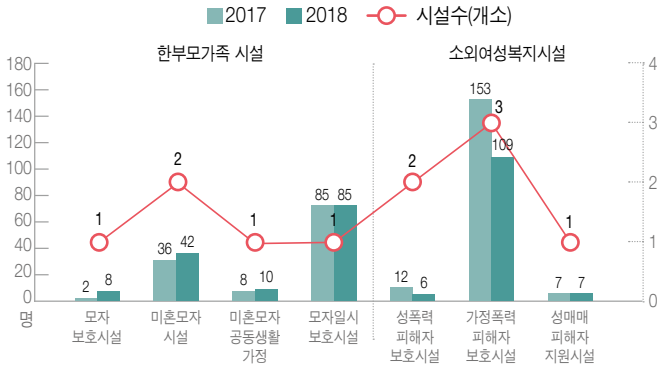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시설 5개소(입소자 145명) 소외여성 복지시설 6개소(입소자 122명)

한부모가족 시설 4개소와 소외여성 복지시설 6개소가 운영 중임

- (2018년 기준) 한부모가족 시설은 총 5개소로 총 입소자는 145명임. 구체적으로는 모자보호 시설 1개소(입소자 8명), 미혼모자 시설 2개소(입소자 42명),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개소(입소자 10명), 모자일시 보호시설 1개소(입소자 85명)가 있음. 한부모가족 시설 수는 전년보다 1개소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입소자 수는 전년보다 총 14명 증가함
- (2018년 기준) 소외여성 복지시설은 총 6개소로 총 입소자는 122명임. 구체적으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입소자 6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입소자 109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입소자 7명)가 있음. 소외여성 복지시설은 2014년 1개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 추가되어 6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입소자 수는 전년보다 6명 감소함

그림 4-16

여성복지시설 입소 인원 2017, 2018



(단위 : 개소, 명)

표 4-16

여성 복지시설 수 및 입소인원 2011~2018

구분	한부모가족시설										소외여성 복지시설								
	계		모자 보호시설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모자일시 보호시설		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시설 수	입소자 수	
2011	4	162	1	20	1	79	1	8	1	55	5	231	1	22	3	181	1	28	
2012	4	192	1	17	1	69	1	4	1	102	5	161	1	17	3	126	1	18	
2013	4	183	1	11	1	39	1	16	1	117	5	265	1	14	3	235	1	16	
2014	4	155	1	13	1	52	1	8	1	82	6	243	2	12	3	217	1	14	
2015	4	195	1	15	1	47	1	12	1	121	6	212	2	16	3	185	1	11	
2016	4	106	1	2	1	30	1	8	1	66	6	185	2	10	3	164	1	11	
2017	4	131	1	2	1	36	1	8	1	85	6	172	2	12	3	153	1	7	
2018	5	145	1	8	2	42	1	10	1	85	6	122	2	6	3	109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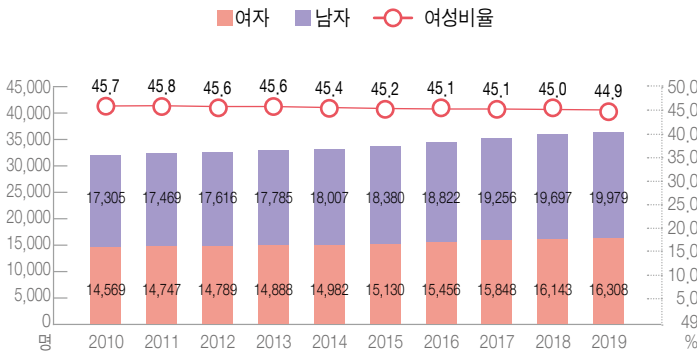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등록장애인 여성 16,308명, 남성 19,979명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 수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증가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여성 16,308명, 남성 19,979명으로 총 36,287명이며, 등록장애인 중 여성은 남성보다 3,671명 더 적고, 등록장애인의 44.9%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 2010년 보다 4,413명(여성 1,739명, 남성 2,674명)이 증가함. 등록장애인의 수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는 더 커짐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0	31,874	14,569	17,305	45.7
2011	32,216	14,747	17,469	45.8
2012	32,405	14,789	17,616	45.6
2013	32,673	14,888	17,785	45.6
2014	32,989	14,982	18,007	45.4
2015	33,510	15,130	18,380	45.2
2016	34,278	15,456	18,822	45.1
2017	35,104	15,848	19,256	45.1
2018	35,840	16,143	19,697	45.0
2019	36,287	16,308	19,979	44.9

그림 4-17

등록 장애인 수
2010~2019

표 4-17

등록 장애인 수
2010~2019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V 사회참여와 문화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19대 대통령선거 여성 투표율 7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투표율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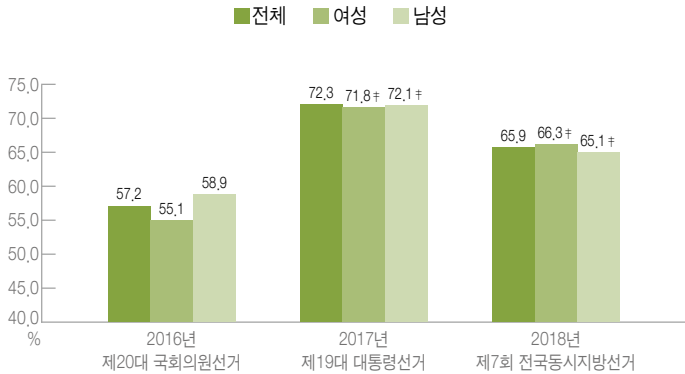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고, 남성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던 이전 선거와 달리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투표율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여성 55.1%, 남성 58.9%로 나타났고,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여성 71.8%, 남성 72.1%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낮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여성 66.3%, 남성 65.1%로 이전 선거에 서와 달리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그림 5-1

투표율

2016, 2017, 2018



(단위: 명, %)

표 5-1

투표율

2016, 2017, 2018

주

† 표본조사값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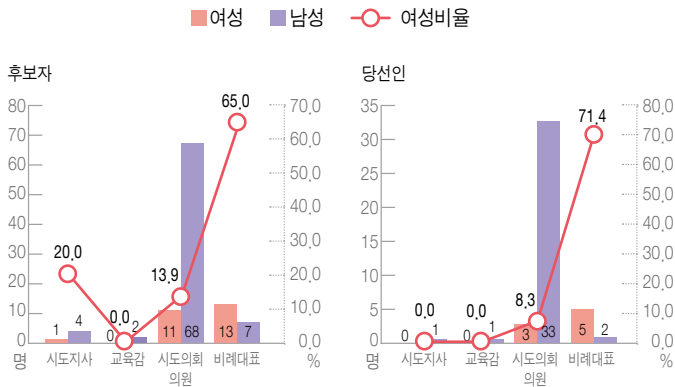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총람」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구분	선거인 구조			투표수	실제투표결과		
	인수구	선거인 명부확정 선거인수	인구대비 선거인 비율		투표율		
					전체	여성	남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629,771	497,615	79.0	286,893	57.2	55.1	58.9
제19대 대통령 선거	645,341	514,264	79.7	374,459	72.3	71.8†	72.1†
제7회 지방동시 선거	663,249	532,515	80.3	350,943	65.9	66.3†	65.1†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시·도의회의원 여성당선인 3명(8.3%) 비례대표 여성당선인 5명(71.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지역 시·도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시·도의회의원 8.3%, 비례대표 71.4%임

-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지역 여성 입후보자는 시도지사 20.0%(1명), 시도회의의원 13.9%(11명), 비례대표 65.0%(13명)로 나타남
- 동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은 시도회의의원 3명(지역구 3명, 교육의원 0명)이 당선되어 시도회의의원 당선인 36명(지역구 31명, 교육의원 5명) 중 8.3%를 차지하였으며, 비례대표는 당선인 7명 중 5명이 여성으로 71.4%를 차지함



(단위 : 명, %)

구분	후보자 수				당선인 수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시도지사	5	1	4	20.0	1	0	1	0.0	
교육감	2	0	2	0.0	1	0	1	0.0	
시·도의회의원	79	11	68	13.9	36	3	33	8.3	
	지역구	73	11	62	15.1	31	3	28	9.7
	교육의원	6	0	6	0.0	5	0	5	0.0
비례대표	20	13	7	65	7	5	2	71.4	

01

사회참여와 문화 정치참여

그림 5-2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 2018

표 5-2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 201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02

사회참여와 문화 행정참여

여성공무원 2,092명(34.7%) 2010년 대비 63.1%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은 여성 2,092명, 남성 3,931명으로 총 6,0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34.7%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지만, 2010년 대비 여성공무원의 수는 63.1% 증가한 반면 남성공무원은 7.8% 증가하여 여성공무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5-3

공무원 현황
2010,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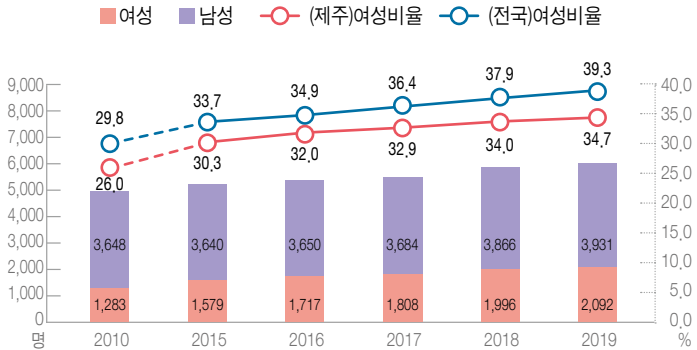


표 5-3

공무원 현황
2010~20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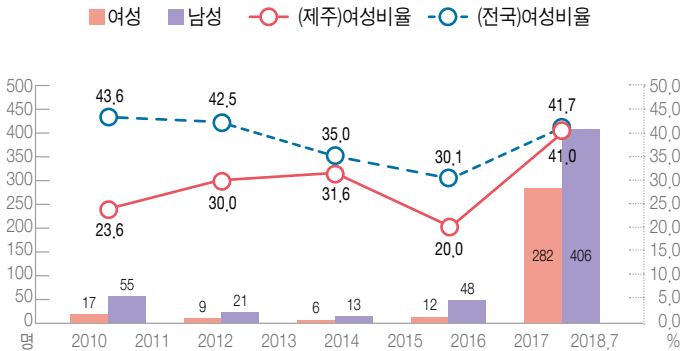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비율
2010	4,931	1,283	3,648	26.0	29.8
2011	4,978	1,314	3,664	26.4	30.0
2012	4,985	1,320	3,665	26.5	30.7
2013	5,006	1,355	3,651	27.1	31.3
2014	5,110	1,474	3,636	28.8	32.5
2015	5,219	1,579	3,640	30.3	33.7
2016	5,367	1,717	3,650	32.0	34.9
2017	5,492	1,808	3,684	32.9	36.4
2018	5,862	1,996	3,866	34.0	37.9
2019	6,023	2,092	3,931	34.7	39.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326명(38.9%) 전국수준보다 낮은 주요부서의 여성 비율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으며, 주요부서 중 실·국주무과의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음

- (2019년 기준)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수는 326명으로 주요부서 공무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부서의 여성 비율은 40.8%인 전국수준보다 1.9%p 더 낮음
- 부서별로는 기획부서 17명(23.6%), 예산부서 9명(30.0%), 인사부서 6명(31.6%), 감사부서 12명(20.0%), 실·국 주무과 282명(41.0%)임.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주요부서는 실·국주무과이며, 전국과 비교하여 여성공무원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부서는 기획부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보다 20.0%p 더 낮음



(단위 : 명, %)

구분	계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실·국 주무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839	72	30	19	60	688
	여성	326	17	9	6	12	282
	남성	513	55	21	13	48	406
	여성비율	38.9	23.6	30.0	31.6	20.0	41.0
전국	여성비율	40.8	43.6	42.5	35.0	30.1	41.7

02

사회참여와 문화 행정참여

그림 5-4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2019

표 5-4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201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02

사회참여와 문화 행정참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16명(18.3%), 2010년 대비 132%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8.3%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5급 이상 공무원은 여성 116명, 남성 634명으로 총 627명이며, 이 중 여성은 16.6%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보다 0.5%p 더 높고, 2010년 대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는 132.0% 증가한 반면 남성공무원은 7.5% 증가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

그림 5-5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2010,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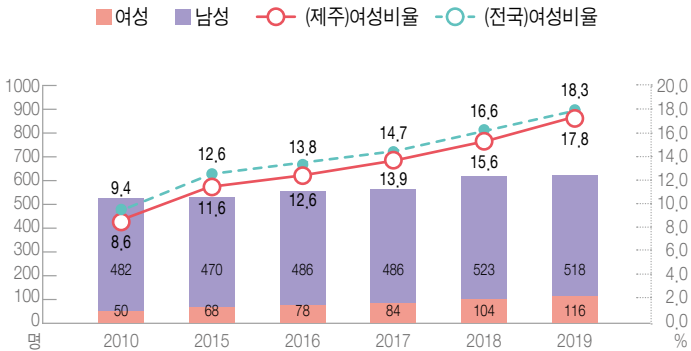


표 5-5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2010~2019

(단위: 명,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비율	
2010	532	50	482	9.4	8.6	
2011	523	52	471	9.9	9.2	
2012	529	56	473	10.6	9.9	
2013	544	65	479	11.9	10.7	
2014	543	63	480	11.6	11.6	
2015	538	68	470	12.6	11.6	
2016	564	78	486	13.8	12.6	
2017	570	84	486	14.7	13.9	
2018	627	104	523	16.6	15.6	
2019	634	116	518	18.3	17.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사회단체 참여율 여성 60.8%, 남성 64.8%

사회단체 참여율은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조금 낮으며, 주된 참여유형은 친목 및 사교단체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사회단체 참여율은 여성 60.8%, 남성 64.8%로 여성이 4.0%p 더 낮음
- (2019년 기준)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유형은 여성은 친목 및 사교단체 76.9%,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38.0%, 종교단체 33.1%, 지역사회 모임 25.0%, 시민단체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친목 사교단체 80.8%,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54.7%, 지역사회 모임 25.4%, 시민사회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율의 성별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6.7%p 더 낮음. 성별격차 중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은 유형은 종교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4.3%p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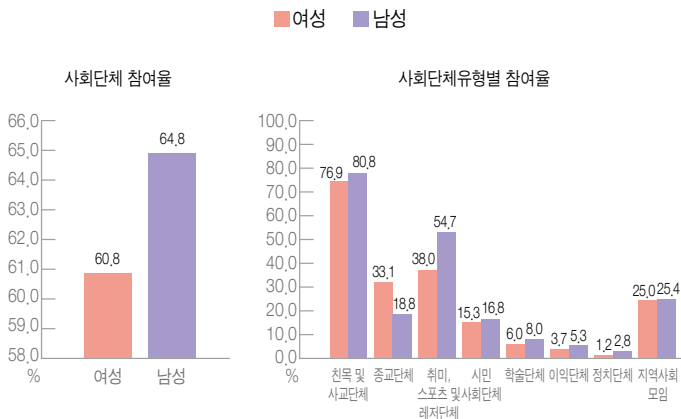


그림 5-6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9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
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03

사회참여와 문화

사회참여

표 5-6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1~2019, 2년 주기

(단위 : %)

시점	성별	참여자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2011	전체	49.5	76.8	21.3	32.5	12.8	5.5	2.4	0.2	16.8	0.7
	여성	45.9	74.0	27.5	24.3	11.8	7.4	1.5	0.0	16.6	1.4
	남성	53.2	79.3	15.7	39.9	13.8	3.8	3.3	0.4	16.9	0.0
2013	전체	44.8	72.9	19.7	33.5	13.0	4.1	2.4	1.1	15.6	0.5
	여성	41.3	73.1	25.7	23.3	12.2	2.5	2.4	0.4	16.2	0.6
	남성	48.4	72.8	14.4	42.5	13.6	5.5	2.3	1.7	15.1	0.5
2015	전체	46.1	73.3	23.9	35.7	14.9	7.2	2.4	0.7	17.2	0.2
	여성	43.1	70.9	29.2	28.1	17.6	7.1	0.4	0.2	17.6	0.3
	남성	49.2	75.5	19.1	42.7	12.4	7.3	4.2	1.1	16.9	0.1
2017	전체	47.0	76.8	22.8	43.9	15.0	5.8	4.2	1.0	22.8	0.0
	여성	44.7	74.4	25.0	38.8	17.3	4.1	2.1	0.5	20.7	0.0
	남성	49.3	78.9	20.6	48.6	12.9	7.3	6.1	1.5	24.7	0.0
2019	전체	62.8	78.9	25.7	46.6	16.1	7.0	4.5	2.0	25.2	0.0
	여성	60.8	76.9	33.1	38.0	15.3	6.0	3.7	1.2	25	0.0
	남성	64.8	80.8	18.8	54.7	16.8	8.0	5.3	2.8	25.4	0.0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여성 18.4%, 남성 18.7%

자원봉사단체참여율은 남녀 모두 18%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대상 봉사단체 참여율이 가장 높음

- (2019년 기준)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은 여성 18.4%, 남성 18.7%로 유사한 수준임
- (2019년 기준) 참여율이 가장 높은 봉사단체 유형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대상 봉사단체(여성 63.7%, 남성 49.8%)이며, 여성의 참여율이 13.9%p 더 높음
- 참여율의 성별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봉사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4.8%p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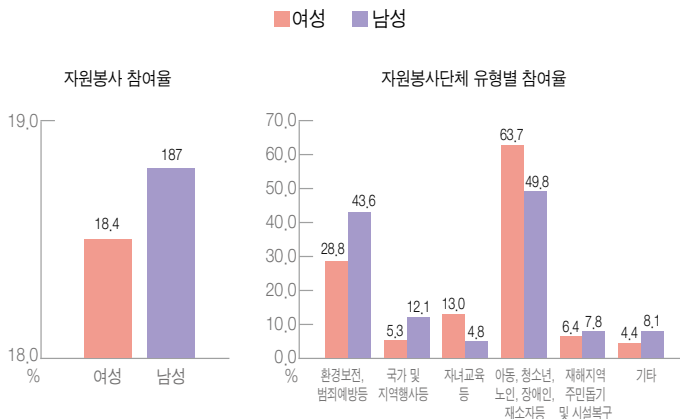


그림 5-7

분야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2019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
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평등」

03

사회참여와 문화

사회참여

표 5-7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2019

(단위 : %)

시점	성별	참여율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가 및 지역행사	자녀교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2011	전체	21.2	22.6	8.1	7.0	57.7	3.2	13.3
	여성	22.8	13.9	5.5	10.9	66.8	2.0	7.3
	남성	19.6	33.2	11.3	2.4	46.6	4.7	20.6
2013	전체	21.5	20.0	5.7	5.8	68.5	4.6	7.7
	여성	22.4	15.8	5.4	9.2	70.4	2.9	8.4
	남성	20.6	24.7	6.0	1.9	66.4	6.6	6.9
2015	전체	22.6	21.4	10.1	8.7	66.4	2.8	4.6
	여성	21.8	16.4	8.5	10.9	72.8	1.6	3.2
	남성	23.5	26.1	11.6	6.7	60.3	4.1	5.8
2017	전체	23.8	22.9	14.1	10.5	49.4	4.1	14.7
	여성	25.9	17.6	10.8	15.6	50.9	3.4	15.5
	남성	21.7	29.3	18.2	4.2	47.5	4.8	13.8
2019	전체	18.5	36.3	8.7	8.9	56.7	7.1	6.3
	여성	18.4	28.8	5.3	13.0	63.7	6.4	4.4
	남성	18.7	43.6	12.1	4.8	49.8	7.8	8.1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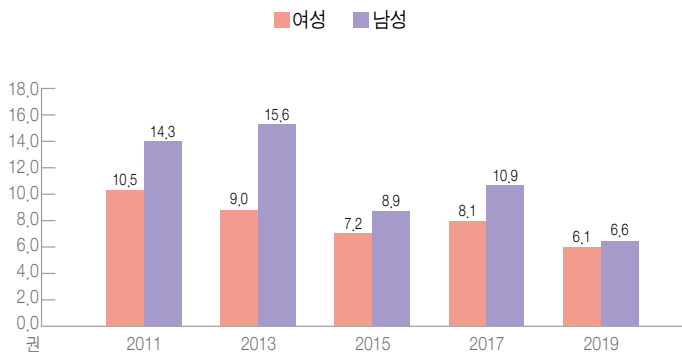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지난 1년 간 1인당 독서량은 여성 6.1권, 남성 6.6권

지난 1년 간 1인당 독서량은 약 6권 가량으로 전년보다 감소함

- (2019년 기준) 지난 1년 간 1인당 독서량은 대량 6권 정도로 여성 6.1권, 남성 6.6권으로 여성이 0.5권 더 적으며, 지난 2017년 보다 여성은 2.0권, 남성은 4.3권 감소함
- 1인당 독서량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특히 여성의 1인당 독서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단위 : 권)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1	11.3	14.4	10.5	14.3
2013	9.6	12.7	9.0	15.6
2015	8.2	10.4	7.2	8.9
2017	8.5	10.5	8.1	10.9
2019	6.9	7.7	6.1	6.6

그림 5-8

1인당 평균 독서량
2011~2019,
2년 주기

표 5-8

인구 연간 1인당
평균 독서량
2011~2019,
2년 주기

주

13세 이상 인구 대상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04

사회참여와 문화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성 64.2%, 남성 64.1%
국내관광여행 경험 여성 57.5%, 남성 55.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과 국내관광여행 경험은 여성이 조금 더 높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여성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남성은 소폭 증가함

- (2019년 기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여성 64.2%, 남성 64.1%로 여성이 0.1%p 더 높고 여성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반면 남성은 1.0%p 증가함
- (2019년 기준) 국내관광여행 경험은 여성 57.5%, 남성 55.0%로 여성이 2.5%p 더 높고 여성은 전년보다 0.7%p 감소한 반면 남성은 1.6%p 증가함

그림 5-9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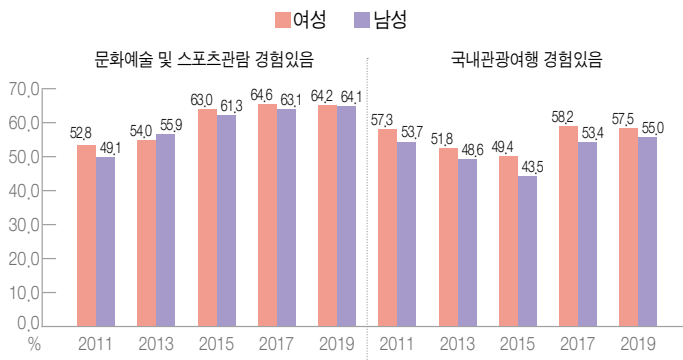


표 5-9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 2019

(단위 : %)

구분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국내관광여행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1	51.0	52.8	49.1	55.5	57.3	53.7
2013	54.9	54.0	55.9	50.2	51.8	48.6
2015	62.2	63.0	61.3	46.5	49.4	43.5
2017	63.9	64.6	63.1	55.8	58.2	53.4
2019	64.1	64.2	64.1	56.3	57.5	55.0

주

- 1) 13세 이상 인구 대상임
- 2) 문화·스포츠·관광 경험은 지난 1년간 해당 경험을 한 사람들의 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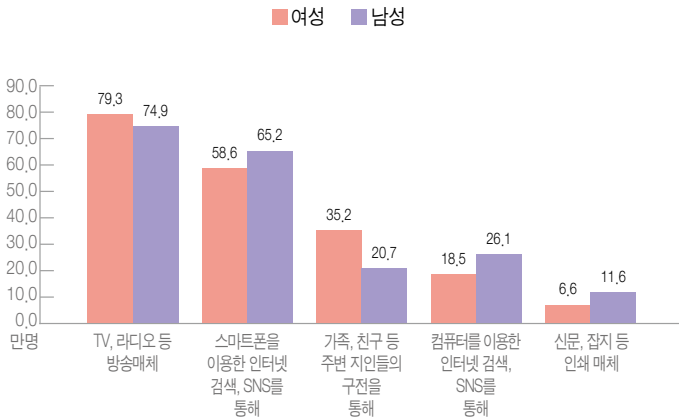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된 정보습득 경로는 방송매체 (여성 79.3%, 남성 74.9)

가장 주된 정보습득 경로는 방송매체이며, 다음으로 스마트폰이 주된 경로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여성의 정보습득 경로는 방송매체 79.3%, 스마트폰 58.6%, 지인 35.2%, 컴퓨터 18.5%, 인쇄매체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방송매체 74.9%, 스마트폰 65.2%, 컴퓨터 26.1%, 지인 20.7%, 인쇄매체 11.6% 순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가장 주된 정보습득 경로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과 SNS로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1순위+2순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의 구전을 통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2016	전체	76.0	54.9	24.8	26.2	16.2
	여성	78.5	52.0	29.8	23.0	14.4
	남성	73.4	57.7	19.6	29.3	17.9
2018	전체	77.1	61.9	28.0	22.3	9.1
	여성	79.3	58.6	35.2	18.5	6.6
	남성	74.9	65.2	20.7	26.1	11.6

05

사회참여와 문화 정보화

그림 5-10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 2018

표 5-10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 2016, 201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05

사회참여와 문화 정보화

가장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 여성 16.9%, 남성 24.5%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순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제외한 나머지 SNS 유형은 여성의 선호율이 더 높음

- (2018년 기준)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여성 16.9%, 남성 24.5%), 밴드(여성 14.8%, 남성 14.7%), 카카오토리(여성 13.8, 남성 12.2%), 인스타그램(여성 13.3%, 남성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SNS 중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남성의 선호율이 더 높았고, 밴드,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카페는 여성의 선호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5-11

선호하는 SNS 종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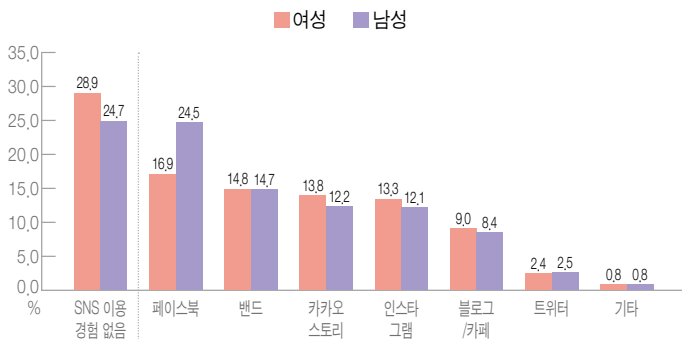


표 5-9

선호하는 SNS 종류
2018

구분	SNS 이용 경험 없음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 / 카페	트위터
계	26.8	20.7	14.7	13.0	12.7	8.7	2.5
여성	28.9	16.9	14.8	13.8	13.3	9.0	2.4
남성	24.7	24.5	14.7	12.2	12.1	8.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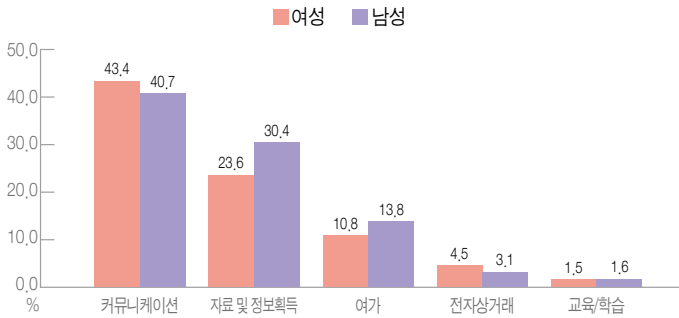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모바일기기의 주된 용도 커뮤니케이션 (여성 43.4%, 남성 40.7%)

모바일기기의 주된 용도는 커뮤니케이션, 정보획득, 여가 등의 순이었으며, 용도별로는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상거래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스마트기기의 활용 용도는 커뮤니케이션(여성 43.4%, 남성 40.7%), 자료 및 정보획득(여성 23.6%, 남성 30.4%), 여가(여성 10.8%, 남성은 13.8%) 등의 순으로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상거래 용도는 여성의 활용률이 더 높았고, 자료 및 정보획득, 여가, 교육 및 학습 용도는 남성의 활용률 더 높게 나타남



(단위 : 명, %)

구분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획득	여가	전자상거래	교육/학습	모바일 기기 없음
전체	42.1	27.0	12.3	3.8	1.5	13.3
여성	43.4	23.6	10.8	4.5	1.5	16.2
남성	40.7	30.4	13.8	3.1	1.6	10.4

05

사회참여와
문화
정보화

그림 5-12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
2018

표 5-12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
2018

주

1) 2018년 7월 31일 기준이며, 외국인 포함 인구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VI 안전과 환경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이

안전과 환경

안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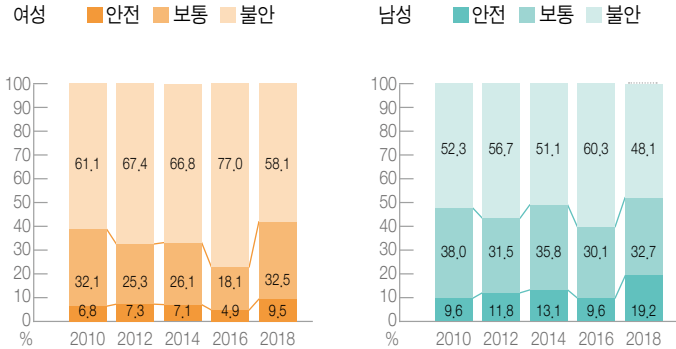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 여성 58.1%, 남성 48.1%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보다는 '불안' 인식이 더 높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불안 인식이 더 높음

- (2018년 기준)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안전 9.5%, 보통 32.5%, 불안 58.1%였으며, 남성의 인식은 안전 19.2%, 보통 32.7%, 불안 48.1%로 남녀 모두 범죄위험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 인식은 지난 2016년보다 여성은 18.9%p 감소하였고, 남성은 12.2%p 감소하여 여성의 불안인식이 조금 더 많이 감소함.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불안인식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6-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
2010~2018,
2년 주기



(단위 : %)

표 6-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
2010~2018,
2년 주기

구분	여성				남성			
	계	안전	보통	불안	계	안전	보통	불안
2010	100	6.8	32.1	61.1	100	9.6	38	52.3
2012	100	7.3	25.3	67.4	100	11.8	31.5	56.7
2014	100	7.1	26.1	66.8	100	13.1	35.8	51.1
2016	100	4.9	18.1	77.0	100	9.6	30.1	60.3
2018	100	9.5	32.5	58.1	100	19.2	32.7	48.1

주

13세 이상 인구대상
(단, 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대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밤에 혼자 걷기 두렵다 여성 52.2%, 남성 29.4%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고, 남녀 모두 인적이 드문 곳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었다)은 여성 50.5%, 남성 28.1%로 여성의 두려움 인식이 22.4%p 더 높게 나타남. 지난 2010년 이후 여성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야간보행이 두려운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서(여성 44.3%, 남성 55.4%), 가로 등이 없어서(여성 37.3%, 남성 37.6%), CCTV가 없어서(여성 16.4%, 남성 20.1%) 등의 순으로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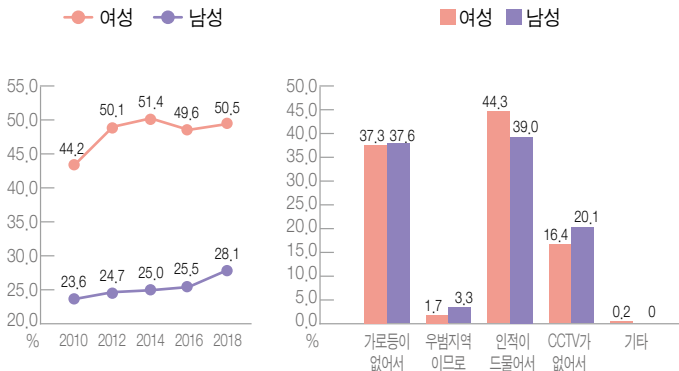


그림 6-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2010~2018, 2년 주기

주

- 1)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었다는 사람들의 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02

안전과 환경

안전인식

표 6-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2010~2018,
2년 주기

(단위 : %)

구분	전체	두려운 곳이 있다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CCTV가 없어서	기타	
2010	전체	34,1	39,2	4,6	55,9	-	0,3
	여성	44,2	36,5	5,5	57,6	-	0,4
	남성	23,6	44,5	2,9	52,7	-	0,0
2012	전체	37,8	38,8	5,1	54,2	-	1,8
	여성	50,1	33,0	5,3	60,1	-	1,5
	남성	24,7	51,5	4,7	41,3	-	2,5
2014	전체	38,5	38,5	6,7	54,8	-	0,0
	여성	51,4	34,9	8,0	57,1	-	0,0
	남성	25,0	46,3	3,9	49,8	-	0,0
2016	전체	37,5	40,4	8,0	51,5	-	0,1
	여성	49,6	35,4	8,3	56,3	-	0,0
	남성	25,5	50,1	7,5	42,1	-	0,3
2018	전체	39,4	37,4	2,3	42,4	17,8	0,1
	여성	50,5	37,3	1,7	44,3	16,4	0,2
	남성	28,1	37,6	3,3	39,0	20,1	0,0

주

- 1)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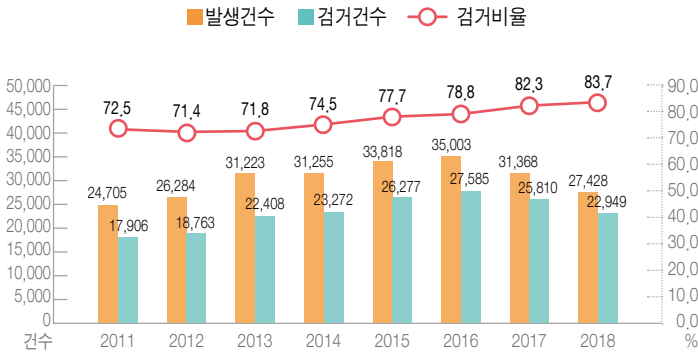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범죄 발생건수 27,428건, 검거건수 22,949건

2016년까지 증가하던 범죄 발생건수가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검거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범죄 발생건수는 27,428건, 검거건수는 22,949건으로 전년 보다 발생건수는 3,940건, 검거건수는 2,861건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까지 증가하던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검거비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A)	24,705	26,284	31,223	31,255	33,818	35,003	31,368	31,376
검거건수(B)	17,906	18,763	22,408	23,272	26,277	27,585	25,810	26,571
A/B(%)	72.5	71.4	71.8	74.5	77.7	78.8	82.3	84.7

그림 6-3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2011~2018

표 6-3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2011~201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

02

안전과 환경

안전실태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 86.4%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86.4%로 여성 피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함

- (2018년 기준) 강력범죄 피해자 535명 중 여성이 462명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
-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91.4%, 강도 50.0%, 살인 26.7%, 방화 28.6% 순으로 나타나 강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

그림 6-4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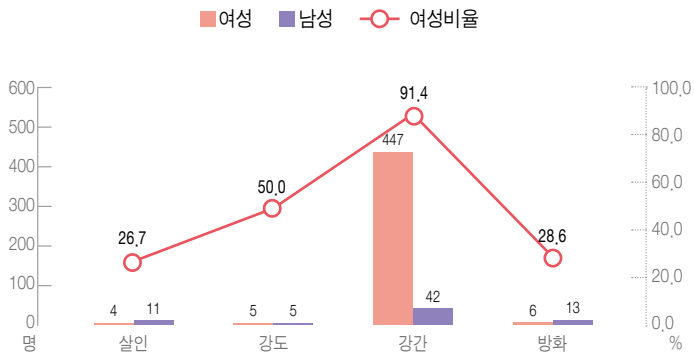


표 6-4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 2018

(단위: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전체	535	15	10	489	21
여성	462	4	5	447	6
남성	71	11	5	42	13
불상	2	0	0	0	2
여성비율	86.4	26.7	50.0	91.4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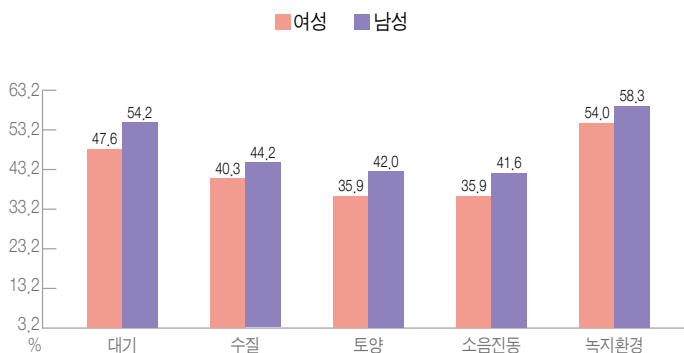
자료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소음·진동 만족수준 38.7% (여성 35.9%, 남성 41.6%)

현재 체감하는 환경만족 수준은 녹지환경이 가장 높고, 소음·진동이 가장 낮음

- (2018년 기준) 현재 체감하는 환경만족 수준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5개 영역에서 모두 여성이 더 낮음
- 가장 만족수준이 높은 영역은 남녀 모두 녹지환경으로 나타남.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과반수에 그침
-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은 남녀 모두 소음·진동으로 나타남. 다른 영역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는 토양에 대한 만족수준이 35.9%로 소음·진동과 함께 낮은 수준임



(단위: 명, %)

구분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계	50.9	42.2	38.9	38.7	56.1
여성	47.6	40.3	35.9	35.9	54.0
남성	54.2	44.2	42.0	41.6	58.3

03

안전과 환경 환경

그림 6-5

환경체감 만족도
2018

표 6-5

환경체감 만족도
2018

주

- 1) 13세 이상 인구대상 조사 자료임
- 2) 환경체감 만족도는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03

안전과 환경

환경

재활용품 분리 배출 93.2% (여성 95.1%, 남성 91.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93.2%(여성 95.1%, 남성 9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와 친환경제품의 구입 및 사용은 하위 순위로 실천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6

환경오염 방지 노력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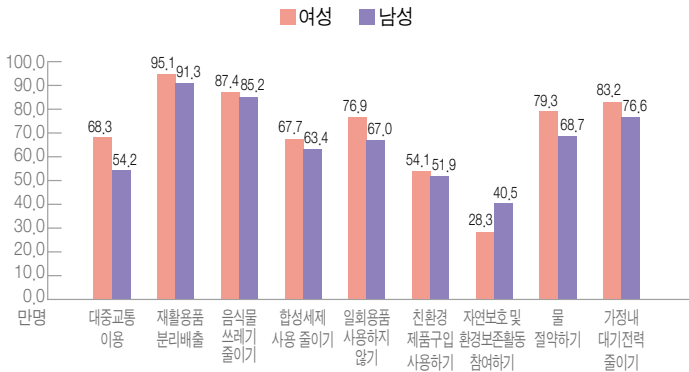


표 6-6

환경오염 방지 노력
2018

(단위 : %)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친환경 제품구입 사용하기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하기	물 절약하기
계	61.2	93.2	86.3	65.6	71.9	53.0	39.6	74.0
남자	68.3	95.1	87.4	67.7	76.9	54.1	28.3	79.3
여자	54.2	91.3	85.2	63.4	67.0	51.9	40.5	68.7

주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매우 노력한다'와 '약간 노력한다'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그림으로 찾아보기

1인 가구의 성별 구성(2010, 2015~2018)	24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8)	74
1인당 평균 독서량(2011~2019, 2년 주기)	89	연령별 인구(2020, 6)	14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2010, 2015~2019)	84	연령별 취업자(2019)	54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2018)	75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0~2017) 암사망률(2010~2018)	67
가구주 가구(2010, 2015~2018)	22	영유아(0-5세) 인구(2010, 2015~2020, 6)	36
가족형태별 가구(2010, 2015~2018)	23	외국인 인구(2010, 2015~ 2020, 5)	12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2018)	100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0~2019)	28
건강강생실천율(2010~2019)	65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18)	68
결혼가처분 비교(2018)	31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1999~2019, 5년 주기)	29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5~2019)	52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5~2019)	64
경제활동참가율(2010~2019)	50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2018)	33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2012~2018)	72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2~2018 2년 주기)	69
공무원 현황(2010, 2015~2019)	82	이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0~2019)	27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0~2018, 2년 주기)	46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 2025~2045)	9
교육효과 인식(2010, 2018)	47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2015~2018)	62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2012~2018)	71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0~2019)	56
기대여명(2005~2017, 3년 주기)	60	저체중자 비율(2010~2018)	66
농가 및 어가 인구(2010~2019)	13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0, 2018)	48
대학교 진학률(2015~2019)	43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2010, 2018)	30
등록 장애인 수(2010~2019)	77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2018)	31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0~2018)	1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2018)	81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향(2019)	90	제주형돌봄 공동체 현황(2016~2019)	39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2011~2018)	99	주관적 건강인식율(2010~2019)	6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0~2018, 2년 주기)	96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2019)	83
보육료 지원 현황(2015~2019)	40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5, 2018~2019)	42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0~2020, 6)	16	초·중·고등학교의 직업별 여성교원 비율(2019)	45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2~2018 2년 주기)	34	총인구(2010, 2015~2020, 5)	8
분야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2019)	87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현황(2010~2018)	73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2010~2018)	57	출생과 사망(2010~2019)	17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2018)	58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0~2018)	18
선호하는 SNS 종류(2018)	92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2019 상반기)	55
살림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19)	37	투표율(2016, 2017, 2018)	80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2019)	85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19)	38
순이동 인구(2010~2019)	20	평균 교육년수(2000~2015, 5년 주기)	41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93	평균 조혼연령(2010~2019)	26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2010~2018, 2년 주기)	97	행정시별 총인구(2020, 5)	11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2015~2019)	44	현재출연율(2015~2019)	63
여성복지시설 임시 인원(2017, 2018)	76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0~2019)	25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19)	53	환경영향 방지 노력(2018)	102
연령 3계층별 비율(2010, 2020, 6)	15	환경제감 만족도(2018)	10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19)	51		

1인 가구의 성별 구성(2010, 2015~2018)	24	연령별 취업자(2019)	54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2010~2019)	84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0~2017) 암사망률(2010~2018)	67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2018)	75	영유아(0~5세) 인구(2010, 2015~2020.6)	36
가구주 가구(2010, 2015~2018)	22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0~2019)	28
가족형태별 가구(2010, 2015~2018)	23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18)	68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2018)	100	요일평균 기사노동시간(1999~2019, 5년 주기)	29
건강생활실천율(2010~2019)	65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5~2019)	64
결혼가처분 변화(2010~2018, 2년 주기)	32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2018)	70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5~2019)	52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2~2018 2년 주기)	33
경제활동참가율(2010~2019)	50	이혼인건수 및 초혼인율(2010~2019)	27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2012~2018)	72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 2025~2045)	9
공무원 현황(2010~2019)	82	인구 연간 1인당 평균 독서량(2011~2019, 2년 주기)	89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0~2018, 2년 주기)	46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2015~2018)	62
교육효과 인식(2010~2018, 2년 주기)	47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0~2019)	56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2012~2018)	71	자원봉사단체 참여율(2019)	88
기대여명(2005~2017, 3년 주기)	60	저체중아 비율(2010~2018)	66
능가 및 어가 인구(2010~2019)	13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0~2018, 2년 주기)	48
대학교 진학률(2015~2019)	43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2010~2018, 2년 주기)	30
등록 장애인 수(2010~2019)	77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2016, 2018)	91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0~2018)	1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2018)	81
문화예술/스포츠허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2019)	90	제주형돌봄 공동체 현황(2016~2019)	39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2011~2018)	99	주관적 건강인식율(2010~2019)	6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0~2018, 2년 주기)	96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2019)	83
보육료 지원 현황(2015~2019)	40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5~2019)	42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2~2018 2년 주기)	34	초·중·고등학교의 직업별 여성교원 비율(2019)	45
분야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2019)	88	총인구(2010, 2015~2020. 5)	8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2010~2018)	57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현황(2010~2018)	73
선호하는 SNS 종류(2018)	92	출생과 사망(2010~2019)	17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19)	37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0~2018)	18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2011~2019, 2년 주기)	86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2019 상반기)	55
순이동 인구(2010~2019)	20	투표율(2016, 2017, 2018)	80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93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19)	38
아간보행에 대한 두려움(2010~2018, 2년 주기)	98	평균 교육년수(2000~2015, 5년 주기)	41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2015~2019)	44	평균 초혼연령(2010~2019)	26
여성복지시설 입소 인원(2011~2018)	76	행정시별 총인구(2020, 5)	11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19)	53	현재출연율(2015~2019)	63
연령 3계층별 인구비율,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0~2020.6)	16	혼인건수 및 초혼인율(2010~2019)	25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19)	51	환경오염 방지 노력(2018)	10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8)	74	환경제감 만족도(2018)	101
연령별 인구(2020. 6)	14		

연 구 기 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책임자 신승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Jeju Women & Family Life

발행일 2020년 7월 31일
발행인 민무숙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Tel. 064)720-4922 | Fax. 064)711-2349
www.jewfri.kr
인쇄처 참디자인
ISBN 979-11-87026-53-2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